(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80 1982년 7월 2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ly 2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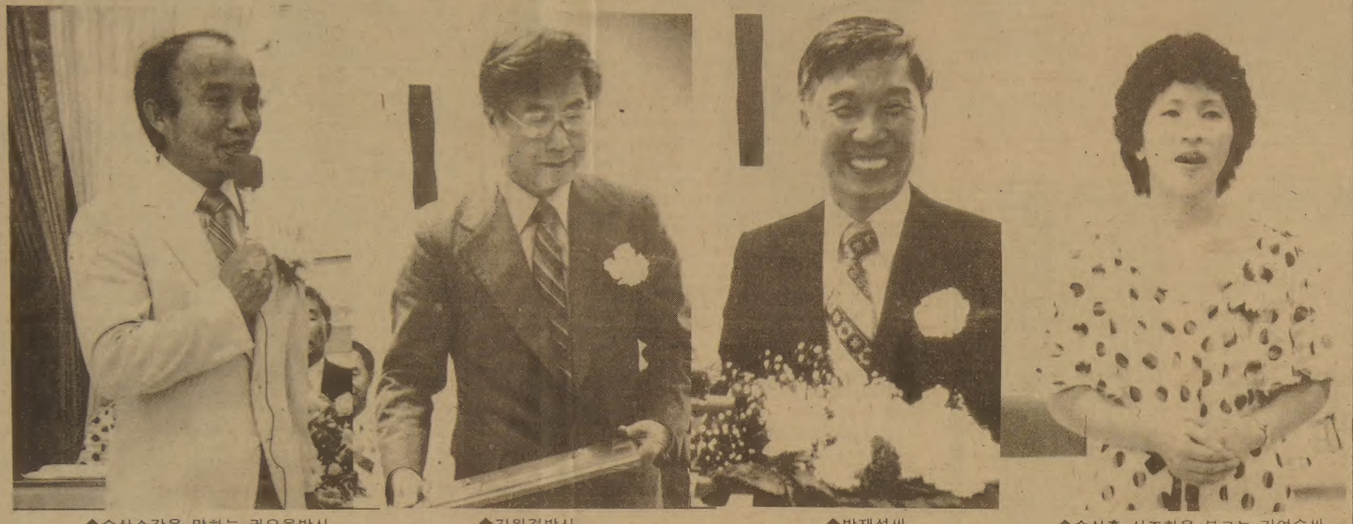
JUL 2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인사회 위해 더욱 정진"

4명의 민족상수상자 시상식서 다짐

◆제2회 한인민족상 수상자들.



◆수상소감을 말하는 권오율박사. ◆김원겸박사 ◆박재선씨 ◆수상후 시조창을 부르는 김영숙씨.

캐나다 전 교민사회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한인민족상 시상식이 17일 하오4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뜻깊게 거행됐다.

4명의 수상자중 에드몬톤, 트자이너(사스카치완주), 위니펙등 지방 거주자 3명과 토론토의 박재선씨는 역시 이 행사를 위해 일부러 몬트리얼서 날아온 오기송 한인총연합회장등의 축사, 90여명 축하객의 축하 속에 앞으로 더욱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지방 수상자들과 오회장은 이날 하오 토론토공항에 도착, 1시간30분의 식에 참석한 후 피로도 풀 새 없이 이날밤 모두 귀향했다.

이날 하오 4시15분 민족상위원회의 구상회·이축길 회장단을 선두로 수상자들이 피아노반주(노경심)에 맞춰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이들을 따뜻한 박수로 맞았다.

강신봉위원(한인총연합회이사장)의 사회로 국민의례후 구위원장은 개회사, 이석현사무국장은 경과보고, 이 부위원장은 16명의 민족상위원들을 소개했다.

이어 구위원장이 권오율박사(경제학)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학술상 상패와 부상을 시상했고 박충도·박희민위원(목사)은 김영숙(국악·무용)씨에게 예술상을, 이태준(문협총무)씨·김명규위원은 박재선씨(체육인)에게 공로상을, 강신봉·전택균위원은 김원겸박사(생물학)에게 봉사상을 각각 시상했다.

부상은 은으로 만든 커피·티·셋이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이 있을 때마다 참석자들은 선풍기나 에어콘 하나없이 찌는듯한 무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만장의 박수로 수상을 축하했다.

장내의 고조된 분위기를 대표하듯 오연합회장은 축사에서 민족의 긍지를 살린 수상자들의 공로를 기렸고 안병한교역자협의회장은 민족의 역사와 보람을 후손에게 길이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가 감동깊게 끝남과 동시 소프라노 송경란씨의 한국가곡 「선구자」 멜로디가 장내를 덮어 수상자들의 마음을 더욱 숙연케했다.

행사 스케줄이 끝나자 권박사는 답사를 자원, 수상의 기쁨을 국민학교시절 상을 탔을 때와 비유하면서 중책감을 더욱 느낀다고 말했으며 김여사는 이번 수상이 좌절감으로 예술을 중단하려던 약해진 마음에 좋은 채찍질이 됐으며 이를 계기로 더한층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여사는 제1부 식순이 끝나자 이조궁중가곡 "우락"(비의 가락), 시조창 "동창이 밝았느냐"를 불러 20여년을 다듬은 예술의 일부를 선보였다. 예정했던 김여사의 고전무용은 소도구준비, 화장등의 시간이 없어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식이 끝난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칵테일 파티에서 수상자들과 전년도 수상자들, 하객들은 약 1시간동안 즐거운 교제를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특히 작년도 제1회 민족상 수상자인 전택균, 김용순, 장근수씨가 참석, 더욱 장내를 빛냈다.(작년도 수상자중 박재훈씨는 외유로 불참)

한인민족상은 한인사회 발전에 공이 큰 인사들을 표창하기 위해 본 토론토 한국일보사가 제정한 민족상으로 사무국을 본사에 두고 재정을 부담하나 수상자 선정등은 범교민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맡는다.

포니 30만대 돌파

9만대 59국 수출

(서울20일=연합)한국현대자동차의 포니생산고가 지난15일로 30만대를 돌파했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국산차종 포니가 최초 생산개시 6년만에 30만대를 돌파했고, 이중 9만2천대는 59개국에 수출됐다.

현대자동차는 84년까지 연간 30만대생산 능력을 갖게되며, 85년에는 트럭, 승용차등 각종차량 15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인 학자5명 참석

토론토 국제기생충학 회의

한국인 기생충학자 5명이 오는 8월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토론토·쉐라톤·센터·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기생충학회의에 참석한다.

이번에 이 대회에서 주제발표및 분과회의 사회자로 활약할 학자들은 토론토제너럴하스피탈 열대의학및 기생충학실험실 책임자인 양용진박사를 비롯 연세대학 의대학장인 소진탁박사, 고려대 의대 임한종박사, 충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김종환박사및 일본 나라대학교 의대 조기목박사이다.

양박사에 따르면 올해로 제5회가 되는 이번 대회는 3년마다 세계 각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며, 참석연사만도 2백여명, 동반가족까지 합치면 연인원 5백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이다.

현재 공산권·아프리카를 포함한 80여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국제기생충학 회의의 발표내용은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는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34만 가방임자는

홍콩교포 이수싱씨

(서울20일=연합)지난 6월 김포공항에서 발견된 미화 34만달러가 들은 가방의 주인은 홍콩교포 이수싱(50)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0일 이 가방의 주인 이수싱씨는 가방이 김포세관에 압수된 직후 홍콩으로 출국했다고 발표하고 이씨는 사건의 주범으로 추측되는 일본인 금괴밀수범 다게조·하야마(51)씨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하야마씨의 한국애인 정은숙씨등 5명의 한국인들은 이미 한국경찰에 체포됐고 7명이 수배됐다.

이 34만달러는 밀수금괴 판매대금으로 밀수금괴중 52kg만이 검찰에 압수됐다.

외교관 대폭이동

9월, 20명선

(서울20일=연합)오는 9월 한국외교관의 대폭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소식통이 20일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8년이상 근무한 외교관은 국내근무로 돌려지게 되어있다. 이 소식통은 유럽 5~6개공관장등 20여개 공관장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과 수상사유

학회서 인정받아

학술상의 권오율씨

권오율박사는 작년 8월 캐나다농업경제학회 선정 「80년도 농경제분야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스카치완주 트자이나대학교수 권박사는 36년 경남 창원군 출생, 56년 마산상고졸, 62년 서울상대 무역학교졸(상학사), 64년 캐나다 유학, 68년 캐나다 맥마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72년 동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경력: 한국은행 조사부, 캐나다연방정부 재무성 수석조세정책관, 75년~현재 트자이나대학 교수, 사스카치완주 증권관리소 이사.

부인 최기정씨와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는 "자녀교육상 좋은 나라, 노력의 댓가를 찾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국악인겸 무용가

예술상의 김영숙씨

서울서 태어나, 서울 국악중고교 졸업, 국립국악원 재직(68~75)중 일본 NHK방송국 초청공연을 비롯, 미국·캐나다·멕시코·일본, 동남아, 프랑스·네델란드·벨기에등을 순회공연했다.

75년 뱅쿠버로 이민, 76년부터는 에드몬턴에서 김영숙국악연구소를 차려, 무용·가곡·시조·장구·가야금등을 가르치는 한편, 각종 다민족예술제·문화행사등에 출연, 한국예술 소개·보급에 힘쓰고 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국악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자신의 적성과 잘 맞아 떨어져 이제 "국악을 2세들에 전수하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부군 이재완씨와 2녀를 두었다.

한글교육에 기여

봉사상의 김원겸씨

49년 서울고교졸, 서울대 문리대를 나와 61년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에서 분자생물학 전공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상경력은 한국외무부장관 표창(한인회 봉사, 한글학교창설 공로), 트루도수상 개인감사친서, 한인회 10주년 공로패, 주캐나다대사 공로표창패, 한인연합회 봉사상패 수상이 있다.

봉사공적으로는 67년 매니토바한인회를 창설후 회계를 맡았으며, 한인회장으로 재직시 민족체전에 참가했고, 한글학교를 창설한 후 캐나다 처음으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다.

74년부터 현재까지 한글학교장.

"이민선배들이 산파역할은 잘했으나 성장에 필수인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게 한인단체들의 문제점의 하나로 생각한다"는 김씨는 문리대 후배인 부인 김윤덕씨와 2남1녀를 두었다.

"체육에 산다"

공로상의 박재선씨

지난 66년 캐나다 이민후 오늘까지 10여년간 교포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에 주역으로 뛴 박씨는 1928년 1월12일 함남 함흥시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공대섬유과 졸업후 이민때까지 줄곧 한직장인 흥한방직회사 인천공장장으로 근무했다.

토론토한인사회 체육역사하면 박씨를 눈앞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는 깊이, 널리 각종 스포츠행사에서 진행·심판등으로 뛴 산 증인이다. 특히 75년 한인청년 상설축구팀 「코리언·타이거즈·삭커클럽」을 창설, 토론토지역 축구협회산하 리그전에 참가, 다른 민족과 실력을 겨루었다. 타이거축구팀을 이끌고 미국 뉴·저지주에 원정, 친선경기를 벌인 일도 있다.

체육인으로는 민족상의 첫 수상자.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 기 예 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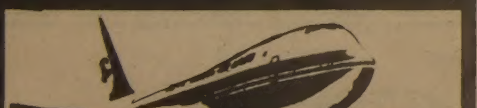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IATA
여름철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한국영화 상영
"마지막 겨울"
주 연 : 유지인 · 이영하
방영시간 : 7월24(토) 하오8~10시 (2시간)
MTV방송(채널47)
제 공 : 한인회, 재캐나다대한체육회
한국외환은행, 한국여행사,
오리엔탈 · 파레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토론토 교민 여러분 가정에 영화 한편을 선사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기자기하게 장장 2시간 방영됩니다.
가족들과 모여앉아 한여름의 휴식처를 그리고 피로를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스타」지와 공항상점 대결

폭리보도 둘러싸고, 교통부 조사나서

토론토공항의 상점과 이들의 폭리를 보도하는 토론토스타간의 싸움에 불이 붙었다.

토론토스타가 19일자 신문에서 공항상점들의 폭리를 1면 톱기사로 지적하자 공항상점들은 신문 판매거부로 맞섰다.

◆공항 「스타」판매대에는 신문이 없다.

스타는 "토론토국제공항의 스모크숍들의 가격은 시중 상점보다 6~25%이상 비싸다"고 보도했다. 시중에서 25개피들이 담배한갑은 $1.60정도이나 공항상점들은 $1.98까지 받아 시민들의 불평을 받아왔다.

토론토공항상점은 이에 대응, 스타신문을 공항에서 팔지 않자 토론토 스타는 20일자에서 또다시 이를 1면톱으로 보도했다.

스타는 상점 수퍼바이저가 "당신이 우리 얘기를 쓰면 내일신문을 팔지 않고 이 말을 또 쓰면 그 다음날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항상점과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연방정부 교통부는 20일 공항상점들의 폭리를 조사토록 명령, 결과가 주목된다.

공항상점 주인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계약한 임대료, 인건비등이 비싸 물건값을 시중보다 높게 받았다고 변명했으나 스타조사에 의하면 공항상점의 임대료는 평방피트당 $13.79로 다운타운의 $25보다 훨씬 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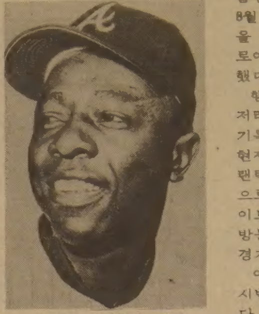
공항상점들은 20일 신문이 다 팔렸다면서 스타지 판매를 거부했다.

한국과 캐나다가 뜨거운 우정으로 만나는 곳

—토론토 한국일보—

홈런왕 행크아론 방한, 타격시범

(서울20일=연합)세계적 홈런왕 행크·아론이 오는 8월 한국을 방문, 타격시범을 보일 것이라고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 20일 발표했다.


◆홈런왕 행크·아론.

행크·아론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755개의 홈런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로야구구단 아틀랜틱·브레이브스의 부사장으로 있다. 아틀랜틱·브레이브스는 오는 10월 한국을 방문, 한국프로팀들과 친선경기를 펼친다.

아론은 한국에서의 타격시범으로 1만달러를 받는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冷血 ⑮

다시 호텔20층방으로 끌고간 모세는…

모세는 2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다. 그리고 문자를 끌고 19호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걸레처럼 카피트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모세는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와서는 그녀의 얼굴에다 뿌렸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 앉았다. 모세는 그녀의 뺨을 여러차례 후려갈겼다. 뺨이 얼얼해지도록 얻어맞은 그녀는 갑자기 설움이 북받쳐 흑흑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정신이 들었어?』

그가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가 손이나 발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얻어맞을 까봐 움찔움찔 놀라곤했다. 그의 손찌검이나 발길질은 너무나 위력적이어서 그야말로 무섭기 짝이 없었다. 공포에 사로 잡힌 그녀는 맞아죽을 까봐 바들 바들 떨고 있었다.

『마음놓고 너를 때렸다면 너는 죽었을거야. 아까 그건 너를 어루만진 것에 불과해. 앞으로는 내뜻을 거역한다든가 비위를 거스르는 짓은 하지마, 알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으면 침대 위로 올라가.』

그녀는 길들여진 개처럼 [illegible] 그의 말을 잘 들었다.

그는 한 마디로 정복자였다. 그것도 완전한 정복자였다.

그렇게 얻어맞고 비참하게 구겨졌으면서도 그녀는 일단 사내의 몸을받는 순간 희열을 느끼고 몸부림치는 모순을 범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열정적으로 사내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이 한데 뒤엉킨 기묘한 울음이었다. 실컷 얻어맞고 나서 느끼는 기쁨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컸다.

朴 男 그림

상대는 두드려 패주고 나서 정복하는 쾌감을 즐기고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새디스트와 마조히스트의 화합같은 기이한 유희였다. 그리하여 격랑이 지나가고 한숨을 되돌렸을때 그 어느때보다도 참담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당신이라는 사람 미워요.』

『알고있어. 난 그런 거 개의치 않아.』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해요?』

『1천만원. 그전대로 입금시키면 돼. 내일까지야.』

그녀는 너무 놀라입이 딱 벌어졌다. 한참 꼼짝 않고 누워있다가 그녀는 모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정면으로 충돌하기 보다는 그를 회유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하면 드리겠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할수는 없지않아요?』

『……』

『전 남편한테 돈을 타쓰고있는 입장이에요. 남편은 공생원이라 한달에 50만원 이상은 내놓지 않아요. 그런입장인데 천만원이라는돈을 제가 무슨 수로마련할수있겠어요?』

그녀는 하소연 하다못해 애걸했다. 그러나 그는 천장을 향해 담배연기만 내뿜어대고 있었다.

『지난번 5백만원도 친구한테 빌린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할지 막연하기만해요.』

그녀는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사나이의 가슴을 흥건히 적실때까지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모세는 끄덕도 하지않았다. 석고상처럼 차갑게굳어 있기만했다.

『당신이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수밖에 없어요. 달리 해결할수있는 길이 없어요.』

『내일까지 천만원을 입금시켜.』

그는 냉랭히 말했다.

<31>

몬트리얼에도 한국식당

아담한 분위기「회의 집」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몬트리얼 최초의 한식 레스토랑 "회의 한국집"(Hi Korea House)이 개업, 성황중이다.

"개업인사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웬만한 몬트리얼 교민들은 한번씩 다녀갔다"고 주인 윤순희 여사가 전했다.

프렌치풍을 가미한 아담한 분위기의 "회의 집"은 메뉴도 다양해서 토론토등지의 한국집에서 볼 수 없는 한정식, 갈비찜등이 특색. 아직은 손님의 주종이 서양사람들이라 값은 약간 비싸지만 한국손님들이 늘어나면 내릴 것이라고 윤여사는 장담한다.

다운타운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회의 집」은영어표기 때문에 손님들이 「하이 코리아하우스」라고 통칭한다. 퀘벡이나 몬트리얼 여행중에 들러볼만한 곳. 전화 1-514-861-6128 주소: 1219 Mackay, Montreal.

「한인회보」창간

해밀턴한인회

해밀턴한인회(회장 이영구)는 「한인회보」를 창간했다. 국배판(11×8.5인치) 4면의 창간호(6월10일자)에는 해밀턴지구의 금년 상반기 행사들, 교회, 스포츠등 소식과 회원근황등을 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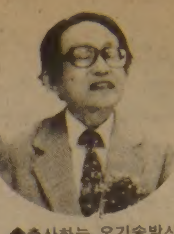
편집인은 이영재씨다.

▲등받이 없는 최신의자—미국가구업계는 약혼선물용 가구의 판매액을 올해 1천5백40억달러로 예상, 「웨스트노파」회사는 등없는 최신의자를 개발 선보였다. 이의자는 등받이가 없지만 매우 안락하다고.

〈축 사〉

한인민족상 시상식에

오 기 송(캐나다한인연합회장)


◆축사하는 오기송박사

금번 토론토 〈한국일보사〉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수여식에 제가 캐나다한인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한인민족상"을 받게 되시는 네분은 자기 분야에서 출중하거나, 사회봉사에 공로가 크신 분들로서 우리 교포사회나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큰 공적을 남기실 분들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수상을 충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반드시 언급해야할 것은 "한인민족상"을 제정한 토론토 한국일보사와 한인민족상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고상한 뜻과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두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하나는 서로 협조하고, 잘 되어가는 것을 축하하며, 상호의 번영을 기도하는 바람직한 집단이 있는가 하면, 둘째로, 그와 반대로 시기와 질투에서 상호 반목하며 파괴적인 방향으로 자기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집단이 있읍니다.

오늘 이 식장의 광경은 전자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여보면 잘 느끼시겠지만 풍성과 복지를 이루고 있는 북미대륙과 그렇지 못한 남미에 속하는 여러 가난한 나라들을 볼 수 있읍니다. 북미와 남미사이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국경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거리를 볼 때에 불과 126마일 밖에 되지 않는 현해탄이 양국 사이에 가로놓여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본토의 거리관계를 볼 때에 황해를 사이에 둔 중국과 일본간의 거리는 불과 475마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간의 빈부차이와 사회적 생활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요소들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북미사회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을 비교할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원이매우 빈약하고, 중국대륙은 현재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미국, 소련 다음으로 가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학 교수 Ezra Vogel은 〈Japan as Number—One, Lessons for America〉(정상국 일본, 미국이 배울점)라는 책을 3년전에 썼읍니다. UCLA의 경영학교수 William Ouchi는 〈Theory Z〉라는 책을 작년에 출판했읍니다. Ouchi는 이 책에서 일본사람들의 기업운영법의 우수한 점을 밝혔읍니다.

오늘 제가 이 축하식장에서 이러한 평범한 예를 들게 되는데는 거기에 따르는 평범한 이유가 있읍니다. 왜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로 되어있고, 여러 분야에서 북미사회를 능가하고 있는가? 왜 북미사회는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국으로 되어있는가?

물론 여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구성원, 즉 "사람"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말은 그들의 "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 사람들은 정신가짐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데 있어서 다른나라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을 받는 분들과 같이 출중하다는 말입니다. 한 사회나, 한 집단이 이러한 질이 다른 사람들로 메워질 때에 그 사회나 그 집단은 희망이 있고, 인간이 살기좋은 사회로 변합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이주하여 새 사회와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읍니다. 역사는 지 못하고, 과거를 반복할 때에 우리는 낙후성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 정착한 제1세 이민으로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고방법, 새로운 생활양식,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사회적 공헌이 모색되어야 하겠읍니다. 우리 이민생활의 건전한 발전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바로 정립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출중한 공적기리는 보람된 "한인민족상"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이 사회는 우리의 무대입니다.

이 활무대에서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 새로운 환경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이 땅을 우리의 낙토로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이 나라는 우리 소수민족에게 이 나라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이 구조적인 틀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복지를 위하여 잘 활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읍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의 일반적인 약점은 과거에 집착하고, 진취성이 부족한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사에 집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것을 섭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새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것을 섭취하면 이때야 바로 우리 교포사회를 위해 각분야에서의 정진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는 높이 든 횃불! 빛나는 문화'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이 사회발전의 향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교포 가운데서 특정분야에서 현저한 공을 세운 분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기회를 마련한 줄 압니다. 오늘 이 식장에서, 또는 지난해에 같은 영예로운 표창을 받은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포사회에서 많이 산출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자리야말로 계속 미래를 지향하는 교포사회의 희망과 귀한 열매를 거두는 빛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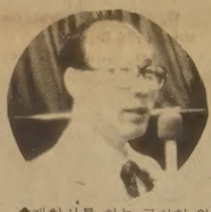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개 회 사〉

뛰어난 공헌에의 보답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개회사를 하는 구상회 위원장

두번째 「민족상」시상식을 갖게 되는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보다 빛나게 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와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수상하시는 네분께 영예의 민족상을 받게 되시는 것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특히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 참석하신 타지역 수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한인민족상은 수상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다고 교민여러분이 인정, 추천한 분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업적이 출중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수상자로 결정하는것입니다.

금년 수상자 네분이 캐나다 여러 지방에 거주하시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거주지 분포를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문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뽑고 보니, 그분들이 캐나다 여러 곳에 살고 계시다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금년 민족상은 이런점에서 명실공히 캐나다 전국의 한인민족상이 되겠읍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업적은 추후에 더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한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캐나다 이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했다는 점입니다.

입으로 봉사하기는 쉽고, 자기 기분날 때 희생적 봉사를 하기는 쉽지만 여러해를 두고 시간, 정력, 금전을 희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캐나다 한인사회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보진전했고, 보다 명랑한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민족상은 "좋은 일을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이 애써 일하신 분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고 있겠읍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인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수상자 네분에게 부탁하는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캐나다 교민 전체가 이분들을 거울삼아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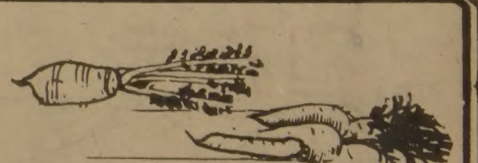
"한인민족상"은 해당분야 출중한 인사를 엄선시상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화소식

알리는 말씀



야채·과일·화초·꽃등을 취급하시는 교민여러분, 또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업을 시작했읍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온타리오 FOOD TERMINAL까지 가실 필요가 없읍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품목은, 온타리오 FOOD터미날가격과 동일하게 직접 PICK UP하시거나, 주문할 수 있읍니다. (단, 시장가격의 변동이 있을때 품목에따라 5~10% 의 차이가 있겠음을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은 $150이상 주문시 해 드립니다.

(배달은 오후1시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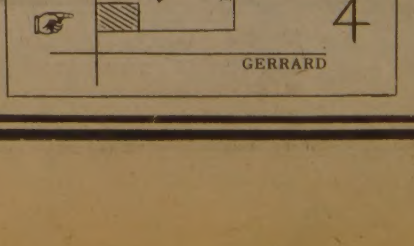
※시간 : 오전9시~오후10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가격·신용보장〉

Broadview Fruit Market 곽덕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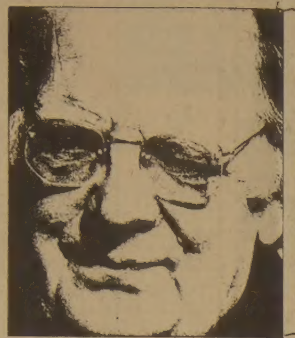
437 CARLAW AVE. ☎ 465—8167



자랑거리 115개를 통해

"캐나다를 압시다" 〈4〉

금년 7월1일 캐나다·데이는 캐나다가 국가로서 탄생한지 115년이 되는 해로 캐나다가 자체 헌법을 가진 후 처음 맞는 생일이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영국의 식민지라는 느낌을 씻기 위해 국가탄생일을 「도미니언·데이」라는 호칭에서 「캐나다·데이」로 바꾸었고, 이 나라 지식인들은 점차 캐나다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국가의식의 문제를 심각히 파헤치고 있다. 흔히들 캐나다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지도상의 위치·면적·인구수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캐나다의 문물에는 어둡기 때문이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로서 캐나다를 보다 잘 알기 위해 7월3일 토론토·스타 부록 「투데이」(Today)지가 밝힌 캐나다의 최고 자랑거리 115가지를 전재한다. 이 중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캐나다인에 의한 발명품, 고안품, 단체, 명승지는 물론, 작가 마가렛·로렌스, 바하 해석의 제1인자 글렌굴드, 비평가·노솝·프라이, 피에르·트루도 등 인물도 들어있다. 스타지는 이 115개의 명단을 2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여론조사로 추출했다.



◆캐나다의 시사주간지 매클린지가 커버 스토리 인물로 다룬 석학 노스롭·프라이.

최고의 지성 노스롭·프라이

불어작가 안토닌·마이예와 트루도수상

63. 캐나데어 "도전자" (The Canadair Challenger)

어느 경비행기보다 싸고 연료를 30%나 절약할 수 있는 「도전자」는 79년 파리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크게 히트한 제1급 비지네스인용제트기. 8~10명의 승객이 안락하게 앉을 수 있다.

64. 의료제도

많은 캐네디언들이 해외를 여행하고 돌아와 "캐나다의 의료제도는 가히 세계에서 첫째가는 것"이라고 결론내리곤 한다.

65. 포인트·펠리(Point Pelee)에서의 조류관찰.

북미에서 조류관찰지로는 아마 최적지인 레이크·이리(Lake Erie)상의 포인트·펠리국립공원은 북미의 2대 철새들의 통로가 한데 모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66. 오타와의 리듀운하

길이 7.8km의 리듀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장. 4만여명이 한꺼번에 스케이트를 타도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67. Susan Nattrass

67. 수잔·나트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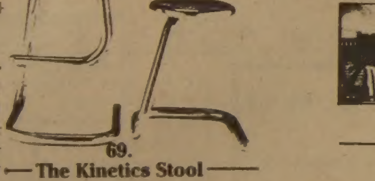
6번이나 세계트랩슈팅챔피온쉽 여성부에서 우승한 자랑스러운 케네디언 여성. 캐나다훈장 수상자이며 81년도 캐나다 최우수체육인으로 지명됐다.

68. 루이스·시미노비치

배양세포유전학계의 국제적 권위자. 그는 토론토에서 시험관에서 자라는 고등생물 세포를 이용하는 개척자로서 유전병이나 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다져놨다.

69. 역학적 의자

70년 휴·해밀턴과 필립·셀몬이 디자인하고 온타리오 다운스뷰의 역학가구점(Kinetics Furniture)이 제조한 이 멋시있는 금속제 의자는 국내외 수천곳에서 팔린다.



69. The Kinetics Stool

70. 대평원(The Prairie)

에드몬톤의 한 추천자는 대평원(The Prairie)를 관망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는 "9월의 아침 5시경 쓸쓸한 길"에서라고 말한다. 이유는 온천지가 평화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71. Antonine Maillet

71. 안토닌·마이예

불운의 민족 아카디언의 얘기를 쓴 서사소설 〈펠라지 고향에 돌아오다〉(Pelagie—la—charrette)의 저자. 불어작가인 그녀는 프랑스의 문단에서 가장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콩쿠르상을 수상한 유일한 캐나다 작가이다.

72. 나이아가라 폭포

찰스·디킨즈는 이 폭포를 "용해된 금덩어리"라고 불렀으며, 19세기 연극계의 별 사라·버나트는 "은막"이라고 말했다.

73. 캐네디언 록키

단연 우세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자랑할만한 캐나다 명소로 혹자는 록키를 "천국으로 가는 캐나다의 관문"이라고 일컬었다.

74. 노스롭·프라이(비평가)

그의 명저 "비평의 분석(Anatomy of Criticism)" 한권만으로도 비평가로서 그를 필적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평을 듣는 프라이 교수(UT)는 캐나다의 최고지성중의 하나. 그는 최근 "The Great Code"란 새 저서로 금세기가 낳은 최대의 사상가의 하나로도 꼽힌다.

75. 스트랫포드·페스티발 (The Stratford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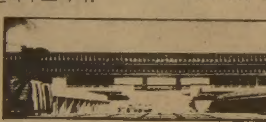
온타리오 스트랫포드에서 매년 여름 열리는 북미제일의 세익스피어연극제 스트랫포드 페스티발의 입장권은 1년전부터 예약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스트랫포드 도시전체가 연극을 위해 존재한다.

76. 부차트가든

제니·부차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원을 만들었다. 이 정원은 브리티쉬·콜럼비아주 빅토리아에 있으며, 그녀의 남편이 채굴한 석회석으로 온상을 만들었다. 일년내내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란다.

77. 사이몬·프레이저대학

버나비산 꼭대기에 위치한 사이몬·프레이저대학은 국제적 명성이 있는 뱅쿠버거주 캐나다 건축가 아더에릭슨이 설계한 가장 극적인 건축구조이다.



77. Simon Fraser University

78. 캐나다순상지(The Canadian Shield)

지구형성 초기인 「프리·캠브리아」기에 형성된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은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 "빙하의 붓으로 그려진 예술품"이라고 일컬어 진다.

79. 무스코카의 가을

단풍나무들은 아직도 옥색 여름을 간직하고 있으며, 곽대기 나무들은 심홍색으로 단장해 여름과 가을의 멋진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장관을 이룬다.

80. 물새 룬(Loon)의 방문

이 북미산 물새는 부화하기 위해 캐나다로 오는데, 교접시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인상적이다.

80. The Call of the Loon

81. 스탠리·톰슨 골프코스

골프코스 건축가이며, 20년대 선수생활을 했던 톰슨은 세계수준의 골프코스를 우리에게 남겼다. 톰슨의 골프코스들중엔 카필라노, 밴프, 몬테벨로, 그린게이블즈, 딕비·파인즈와 세인트조지등이 있다.

82. 국립영화위원회(The National Film Board)

일년에 134개국에서 5억이상의 사람들이 이 곳에서 제작한 영화를 본다. 동위원회는 지금까지 2천회에 걸쳐 각종상을 땄다.

83. 피에드·엘리옷·트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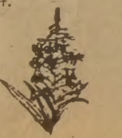
연방수상으로서 가장 "흥미로운 정치가이다. 그는 캐나다를 보다 국가답게, 우리를 더욱 존경받는 국민으로 만들었다".

84. 헬리콥터 스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부가부즈(Bugaboos)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 스키어들을 산꼭대기로 공수한다. 스위스나 콜로라도에서 스키를 타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스키의 극치"라고 칭찬한다.

85. 파이어위드(Fireweed)

유콘지방을 상징하는 꽃으로 불탄자리에서만 나는 친화성 잡초, 장미빛 분홍색인 이 꽃은 하늘을 향해 핀다. 아북극지대에서 볼 수 있다.



85. Fireweed

86. 맥디브·패스·조지아해협

청어, 연어, 식인고래, 물개, 가마우지(조류)및 물새들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연그대로를 만끽할 수 있는 곳중을 하나다.

87. CN타워

온타리오 미시사가에 사는 국민학교5학년 브라이언·밀즈는 다음과 같이 CN타워를 표현했다. "엘레베이터를 탔을때 뱃속에 이상한 느낌아 들었다. 꼭대기에 올라가보니 망원경이 있었다. 25센트동전을 넣고 보니 나이아가라폭포까지 보였다".

88. 뱅쿠버의 스탠리공원

다른 도시들은 웅장한 공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공원처럼 다운타운에 위치하며 다양성을 가진 곳은 없다.

89. 수력발전

제임스베이에 세계최대의 수력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인 캐나다에는 발전소설계 전문가들이 많다. 수력발전소를 짓는 대부분 나라들이 캐네디언 전문가와 상담한다.

90. 대륙횡단철도관광

몬트리얼과 뱅쿠버간 장장 4,800Km를 잇는 이 철도는 소련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보다 훨씬 낫다.

90. The Transcontinental Train Ride

아름다운 뱅쿠버, 발레리나 케런·케인

토론토의 싸이언스·센터와 일천섬

91. 국회도서관

화려하게 조각된 목재널판과 그림같은 서가의 발코니를 가진 이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건물중 산표본의 하나이다.

92. 제이투조·윌슨(J. Tuzo Wilson:지학연구가)

그는 지구의 6대륙은 처음 모두 붙어있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갔다는 「접시구조지질학」(Plate Tectonics)설에 큰 공헌을 했다. 그는 지학계의 노벨상이라는 「벳레센상」을 수상했다.

93. Yousuf Karsh

93. 유섭 카쉬(사진가)

거의 50여년동안 그는 쌀롱사진(실내사진)의 모든 규칙을 타파했다.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아직도 오타와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에 들른다.

94. 람쏘초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바위투성이인 뉴우펀들랜드의 람쏘초원은 서기1,000년경 바이킹들의 식민지가 형성된 곳. 이들은 유럽인들로서 최초의 북미정착인들이 됐다.

95. 그레잇·화이트·트릴리움

3개의 꽃잎을 가진 트릴리움(연령초속의 식물)은 멀리는 남쪽 조지아까지 퍼져있으며, 동부캐나다에 가장많다.

96. 치눅(The Chinook)

한겨울 알버타로 불어오는 따뜻한 서풍.

97. 모데이카이·리칠러 (Mordecai Richler)

이 독설적이며 대가적소질을 가진 소설작가는 케네디언은 뚱하고 유모어가 없다고 평했다.

98. 공룡주립공원

소협곡과 캐년으로 이루어진 2만2천에이커의 이 공원은 세계적으로 선사시대 동물인 공룡들이 묻힌 곳으로 유명하다. 30종이상의 화석화된 유골이 황무지표면을 같았다.

99. 뱅쿠버

리오데자네이로, 샌프란시스코와 시드니에 필적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

100. 이중언어

비록 소수의 사람들은 캐나다의 공식이중언어 사용을 비난하지만 대부분의 캐네디언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가지 언어를 말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01. 장·바니에즈

전 총독의 아들. 그는 프랑스에서 200여명의 정신박약성인들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102. 캐나다스키 마라톤

5천명의 캐네디언들이 퀘백 라슈트(Lachute)에서 오타와까지의 160Km코스를 2일간 스지를 타고 달린다.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아마추어 크로스·컨트리스키 경기장으로 알려졌다.

103. 톨러·크랜스톤(Toller Cranston)

남성 피겨스케이팅 안무와 복장을 개혁한 사람.

104. 팔리 모왓(Farley Mowat·작가)

그의 저서에서 캐나다원주민과 북극에 대한 열정과 전문적지식을 피력했다. 그의 책은 20개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105. 스티브·포드보르스키(스키선수)

비유럽계선수로는 처음 월드컵·스키 다운힐 챔피온이 됨.

106. 캐나다의 물.

세계의 식수공급량의 1/4을 차지한다. 점점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세계에서 캐나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을 소유한 셈.

107.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해변들

하와이나 프랑스의 리비에라 해변은 깨끗함과 크기, 붐비지 않음에서 분홍빛 모래를 가진 P.E.I.의 스탠홉(Stanhope)이나 커벤디쉬(Cavendish) 해변에 비길바 못된다.

108. 이누이트(에스키모원주민)들의 판화

돌을 깍아 만든 이 생생한 판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9. 일천섬(The Thousand Islands)

인디언부족의 하나인 「이로키오스」는 세인트로렌스강 안에 있는 이 섬들이 천국의 중심부라고 생각했으며, 유명한 왈도프아스토리아호텔의 주방장은 이섬의 이름을 따 처음으로 「타우젠드 아일랜드」란 샐러드드레싱을 만들었다.

110. 눈새들(The Snowbirds)(공중곡예비행팀)

조그만 캐나다공군 「CT 114 튜터」연습젯트기로 비행하는 최초의 공중곡예비행팀.

111. 평화유지군

캐나다국군은 48년이래 유엔산하 평화유지군으로 봉사해 왔다. 한국의 휴전선에는 아직도 캐나다군인들이 감시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112. 숲 들소(Wood Bison)

평원에 사는 들소보다 조금 크고 털이 적게난 숲들소는 세계에서 오직 2곳에서 야생한다. 2곳은 웰크아일랜드와 알버타의 웃버팔로 국립공원이다.

113. 케런·케인(발레리나)

캐나다국립무용단이 키운 그녀를 뉴욕타임즈는 "한마디로 어느 시즌이나 무대위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댄서"라고 평했다.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유럽등지에서도 많이 출연한 세계정상급.

114. 호밀위스키(Rye Whisky)

150년간 호밀, 옥수수, 밀과 보리로 만든 캐네디안 위스키는 미국, 일본및 스콧틀랜드까지 수출된다.

115. 온타리오·싸이언스·센터

매년 모든 연령층을 망라하여 150만명이 토론토의 이곳을 방문, 새로운 지식을 얻고 즐긴다. 외국대표들도 와서 이와 비슷한 기관설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간다.

(끝)

◆정상급 발레리나 캐런·케인.

그리운 고국은
KAL 기
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만이 통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만이 가지는 우리의 예절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들의 대한항공…

고풍 가득한 십장생 그림이 있는
B 747 점보기의
넓고 아늑한 분위기…
우리의 가곡이 흥겹게 흐르는 스테레오
씨스템과
우리 고유의 음식 써비스…
그리고 사뿐히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승무원들의 수줍은 미소…
그리운 고국은 KAL 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大韓航空

지정여행사
한국여행사 531-4607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화보

제2회 한인민족상

◆축하케익을 자르는(왼쪽부터) 김영숙·박재선·이축길 (부위원장) 구상회(위원장), 권오율·김원겸씨.

한인사회의 일꾼 4명 한인민족상을 수여받다

◆선구적인 수상자들에게 「선구자」를 불러주는 송경란씨.

◆"오·캐나다"를 부르는 하객들

82년 7월 17일 토론토 한인회관

◆수상자들과 전년도 수상자, 민족상위원및 축사자. 앞줄 수상자 4명, 뒷줄 왼쪽부터 강신봉·박충도·이석현·장근수·이축길·구상회·김용순·전택균·오기송·박희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421

글·高羽榮·그림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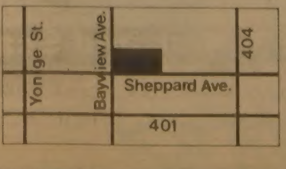
533-7966 김 영 철

최고 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존,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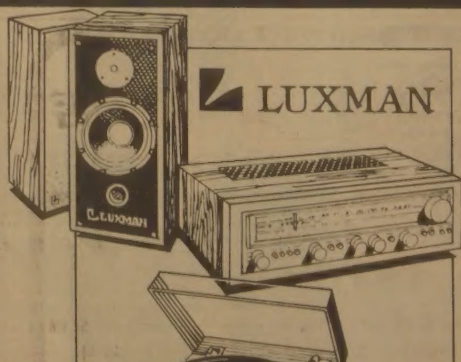
대표 김 항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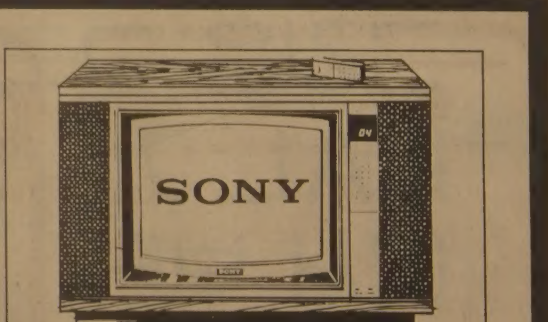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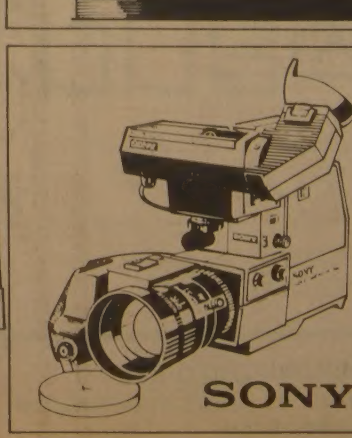
취급품목

Stereo
Television
Video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V.C.
Panasonic
Sanyo
A.K.G.
Sennheiser







한국일보

「40억弗」수락 失敗아닌가

어제 國會外務委 韓·日經協문제등 추궁

"「安保經協」명분 어찌됐나" 질의

"早速 타결위해 額數삭감" 답변

국회는 16일외무위를 열고 李範錫외무부장관으로부터 韓日經協문제를 비롯한 최근의 외교현안에관한 보고를받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李斗玩 李慶淑 李榮一(이상 民正) 許景九 申鉉洙(이상 民韓) 林德圭의원(국민)등은 주로 韓日經協과 관련, 당초 요청한 60억달러의 규모가 40억달러線으로 줄어든 배경과 이유에관해 집중적으로 따지고 ▲40억달러로 내린것은 외교적실패아닌가 ▲40억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 ▲安保經協의 명분이 사라진 이유 ▲상품차관에대한 우리측 요구의 실현가능성등에대해 물었다. 의원들은 또 레이건美 대통령의 訪韓親書와관련한 레이건 대통령의 訪韓가능성과시기, 프랑스정부의 北韓승인 움직임과 미테랑프랑스 대통령의 訪韓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李장관의 訪美배경과 슐츠美국무장관의 취임에따른 韓美관계등에 관해서도 질의를 벌였다.

李장관은 韓·日經協에 있어 당초1백억달러를 요청했다가 60억달러로, 다시 40억달러로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당초 1백억달러를 요구했을때에는 公共차관60억달러, 민간차관40억달러였는데, 그중 60억달러부터 논의하자고해서 교섭과정에서 40억달러가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經協문제에관해 『양측의주장이 엇갈려 시간지연을 택할것인가 또는 日의입장을 고려, 어떤 타협점을 모색할것인가를 생각끝에 문제해결에 도움이된다고 판단, 총규모 40억달러案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우리의 언론에서 우리측의 새로운제안이 ODA(정부개발협력자금)23억달러 상품차관 17억달러로 밝혀졌을뿐 외무부에서 이같은案을 일본에 제시한일은 없다』면서 『일본이 이달하순께 어떤代案을 갖고올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할수없지만 우리의 양보에도 한계가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일본이 제시한 代案이 만족치못하다면 우리의 입장을 계속 전달토록하되 그래도 끝내받아들일수없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그때가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韓日經協문제등 외교현안을 다루기위해 16일하오 열린 국회外務委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는 李範錫외무장관.

佛、北傀승인 쉽지않아

防産品수출 美서 支援약속

李외무보고

李範錫외무장관은 16일 국회外務委보고에서 韓日經協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우리가 치중해온것은 總額과 金利였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협력의 내용』이라고 밝히고 『일본측이 제시한 40억달러와 金利6·1%를 그대로받아들이면서 그내용을 ODA(政府開發基金)와 상품차관으로 공여해줄것을 일본측에 요청했다』고 말함으로써 한국측의 요구액이 60억달러가아닌 40억달러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ODA는 제5차 5개년계획의 核心사업인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절대필요하므로 增額을 요청했으며 또한 5차계획 프로젝트의원만한 추진을위한 內資보충용으로 상품차관공여를 요청했다』면서 『다만 일본측이 수출입은행자금의 混合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하여 이러한 일본측입장을 수용하되 輸銀자금은 우리가필요로하는 상품차관으로 공여하는 방안을 제시한것』이라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자신의 訪美결과에 언급, 『訪美중 對韓군사판매차관은 우리의 자체戰力증강에 필요한것으로서 앞으로 그 액수를 보다 증가하고 조건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할것을 약속했다』면서 『우리의 방위산업육성을위한 韓美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防産品의 제3國수출문제에도 협조를 긴밀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의 北傀승인여부와관련, 李장관은 『프랑스의 執權사회당은 그들의 존정책인 소위 보편주의원칙에 따라 韓佛우호협력증진방침과는 별도차원에서 프랑스의 對북한승인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힌후 『그러나 최근 심화된 韓佛간의 경제협력등을 감안、實利차원에서도 한국에대한 중요성을점차 인식하고있기때문에 實益이 없는 北傀승인은 가까운 시일안에 이뤄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兵役의무 안마쳐도 海外여행 할수있다

兵務廳 留學·기술연수·방문 대상

병역의무를 마치지않은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자)도 국외여행을 할수있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 방침에따라 18~20세까지의 징병검사대상자라도 유학、기술연수、국제회의참석、부모동거 및 방문등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수있다고 밝혔다.

단 유학은 ▲고교졸업자는 ①졸업석차20% 이내일것 ②시·도교육감의 추천서가 있을것 ③입학허가서 ④재정보증인(2명)이 있어야 가능하며 ▲대학및 대학원생은 ①총장추천 ②입학허가서 ③재정보증서(2명)가 있어야 한다.

또 기술연수는 관계부처장관의 추천으로 1년이내의기술연수가 가능하다.

○全대통령이 果川제2정부청사新築현장을 시찰하고있다。

果川 政府제2廳舍 3·4棟 내년에着工

全대통령 지시

全斗煥 대통령은 16일상오 果川 정부제2廳舍 新築현장을 시찰하고 현재 신축중인 제1、제2棟에 이어 정부제2廳舍 團地안에 제3、제4등 2棟을 내년부터 착공토록 계획을 세워보라고 朴贊兢총무처장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정부제2청사 신축현장에들러 金學文 정부청사 관리소장으로부터 果川단지조성및 청사 신축현황을 보고 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청사단지를 둘러보았다.

全대통령은 특히 완공단계에 있는 제2棟과 民願室등이 들어설 案內棟의 내부및 주차장등 외부시설을 살피고 건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닐美下院의장 내년봄 訪韓희망

【로스앤젤레스支社16日=邊鴻鎭기자】토마스·오닐 美하원의장은 15일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내년 봄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오닐의장은 남북대화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정책에 찬성하고있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밤 비버리 힐즈에 있는 민주당간부자택에서 그를 위한 후원회모임에서 『한국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우호관계를 다지고 싶다』고 말했다.

制憲議員등 격려

全대통령、金一封

全斗煥 대통령은 제34주년 制憲節을맞아 16일 지난해에 이어 制憲의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制憲국회의장을 지낸 故李承晩박사의 미망인 프란체스카여사와 故申翼熙선생의 미망인 金海華여사에 대해서는 金聖培의원을 시켜 금일봉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全대통령은 대부분 高齡과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 제헌의원들의 老後를 위해 이미 금년 국회예산에 生計보조비를 책정, 매달 일정액을 지급토록 해왔다.

制憲의원은 보궐선거 당선의원등을 포함, 2백9명에 이르렀으나 현재 47명만이 생존해있다.

올上半期 都賣물가 1.6%상승에 그쳐

54년이래 최저、「소비자」는 3·2%올라

정부의 한자리수 물가시책과 해외수입상품가격의안정, 그리고 임금인상률자제한 봉급생활자들과 일반국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올상반기중 도매물가는 사상유례없는 안정세를 보였다.

1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상반기물가동향에 의하면 올해들어 6월말까지 도매물가는 1.6%밖에 오르지않아 지난54년(상반기 28년전인 1·4%)이래 가장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도 3·2%상승에그쳐 73년(상반기1·8%)이후 가장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시기와 대비한 연간상승률을 기준으로해서 올해의 月別물가동향을 살펴보면 도매물가의경우 1월이 11·3%, 2월이 11·0%였으나 3월부터 10%이하로 내려가 9·8%, 4월이 7·4%, 5월이 4·2%, 6월이 2·9%로 안정세가 점차 굳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소비자물가도 1월이 11·1%, 2월이 10·8%였으나 3월부터 10%아래로 떨어져 9·6%를 기록한뒤 4월 9·1%, 5월 8·0%, 6월 5·2%로 역시 안정기조를 다지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이후부터는 도·소매물가가 모두 10%이래의 한자리수 물가를 시현하고 있는가운데 계속해서 하락, 안정되는 현상을 보였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물가안정이 ①물가안정에대한 신뢰와 사재기、실물투기의 퇴조, 건전한 가계운용등 일반국민들의 협조와 ②임금인상 자제 ③기업경영의 내실화 ④정부의 물가안정노력 ⑤원자재등해외수입상품가격의안정 등에 힘입은것이라고밝혔다.

旣存예금 假名사용 無期限 허용

87년 7월이후 實名化면 "출처不問"

7·3조치補完지침 少額이자 免稅등 검토

정부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라도 기존예금에 대해서는 무기한 가명을사용할수있도록했다. 다만 83년 6월30일까지 실명화하지않은 가명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이자소득의 50%를 중과세하며 무기명으로는 인출을 할수없도록했다. 이에따라 83년7월 1일이후인출하는 가명예금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하고 출처를밝히지못하면 5%의과징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86년7월1일 이후에 이를 실명화하는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불문에붙이고 5%의 과징금도 부과하지않기로했다.

16일 재무부가 마련한 『실명거래제 실시와 종합소득세제 개편』이라는 실명거래제 지침서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으로 실명화한것을 원하지않는 사람은 이자소득에대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50%의 세금을 납부하면 계속해서 무기명으로 남아있을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무기명으로 있을경우 86년 7월1일 이후에 이를 실명화할 경우에는 그자금의 출처를 불문에 붙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지침서는 83년7월1일 이후부터는 무기명예금은 무기명상태로 인출할수 없으며 출처를 밝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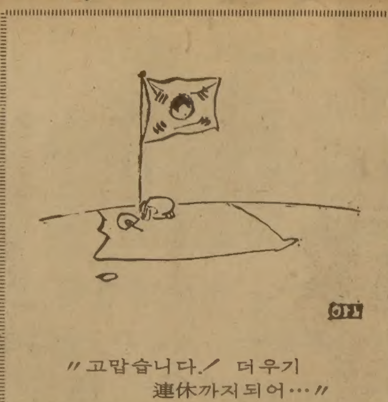
실명거래지침서는 사채양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상호신용금고나 단자회사의 설립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가해 주기로하는 한편 다만 대출사고가생길것에 대비하여 보험적인 성격을 갖는 안정기금을 설치하여 단자회사나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출연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침서는 특히 실명거래시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만들때 음성적인 사채놀이를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기로했다.

그런데 실명거래 지침서가 86년6월1일이전에 실명화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따지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5%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87년7월1일 이후 실명화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불문에 붙이기로 한것은 장기무기명예금을 권장한듯한 인상을 줄뿐아니라 실제로 거액무기명 예금자에 대해서는 실명화하지않고 오히려 무기명으로 남도록 권장하는 결과가 될수있기때문에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다.

한편 정부는 실명거래제 실시와 관련, 국민대다수에게 불편이없는 세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소액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하거나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또 은행저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단일화되어있는 금리체계를 조정, 단기저축에는 낮은금리를, 장기저축에는 높은금리를 적용하는 등 차등을 두고 사채양성화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단자, 서민금고등 제2금융권의 금리를 조속한 시일내에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社會漫評



"고맙습니다./ 더우기 連休까지되어…"

地平線

책이라면 세계각국에서 매일 7천여권씩 1년 열두달 사들이는 미국의 국회도서관이 아무래도 「세계최대」의 도서관이다. 그옛날 淸나라의 四庫全書나 우리의 奎章閣에 댈게 아니다. 영국의 대영박물도서관이나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또는 소련의 레닌주립도서관보다도 규모가 큰것은 미국의 국력을 말하는 것이다. ▼천하의 책이 모이고, 천하의 문화가 모인 미국의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의 옛전적은 중국쪽에 붙어가있다. 「한국의 책」이라면 개화기 이후를 말하고, 그전에 한자로된 책은 모두 중국문화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옛 전적은 버젓이 일본책취급을 받고있다. 한자문화권안에서도 뛰어난 독자적민족문화를 창조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놀랄일이다. ▼한자로된 저술이라면 어느모로 보나 이땅의 지식인들의 업적이 일본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도서관에서는 거꾸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다. 웬만한 지식인이라해도 한국이 유럽사람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말을 곧이 듣지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직은 반만년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우물안 개구리의 자랑과 같은 꼴이다. ▼「동양」이라면 중국이 아니면 일본을 말하는 것은 아직도 서양사람들에게 하나의 고정관념과도 같은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동양학연구가 燕京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뜻에서 이상할게 없다. 하버드에서 일본의 옛풍속도, 浮世繪를 쉽게 본다고해서 이상할것도 없다. 다만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고 할수밖에 없다. ▼하버드대학교의 「한국연구소」가 돈에 쪼들리다 못해 작년6월초 문을 연 하버드의 「한국연구소」가 문을 닫아야될 형편이라고한다(한국일보 16일자 7면보도). 이 연구소는 그동안 동아시아연구소의 한국학을 차지하고있던 것을 독립시킨 것이었다. 동아시아연구소가 모든 기금에서 8만달러를 떼어, 그것을 이자로 운영하자는것이었다. 연구소로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였다. ▼하버드의 「일본연구기금」은 돈을 물쓰듯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나마 간판을 내건 한국연구소가 문을 닫아야될만큼 어려운것과 대조적인 일이다. 70년대 잘못된 로비활동으로 터진 소위 「코리아게이트」를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을 학문적으로 소개할 연구소의 지원은 1천금을 쓴다하여 아까울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학계와 기업이 발벗고 나서야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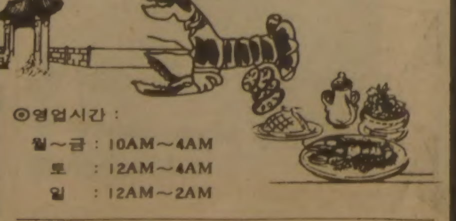
공고

R.C.M.P경찰에서는 각종 불법으로 수입된 보석이나, 정당치 못한 보석류, 또는 다른 값진 상품등에 대항해서 처리하는 보석부를 신설했읍니다.

이러한 일에 관계되는 모든 일은, 서슴치 말고 ;
Constable Roger Gillies(전화 : 369-3231)
또는 편지로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Customs & Excise Section,
Box 519, Postal Station 'A',
Toronto Ontario
M5C 2MC로 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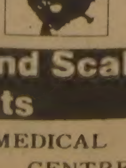
어떤 주어진 소식에 저희는 완전히 자신있게 해결할 것입니다.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LEON'S
MCLEVIN
SHEPPARD
MARKHAM
HWY. 401

戰線32km… 20만兵力 접전

이란-이라크戰 「바스라」서 攻防치열

"2次대전후 最大"
이라크 이틀간 3천여명射殺

◇이라크機의 空襲현장 14일 이라크 공군기의 무차별 폭격을 받은 이란 산업도시 일람시가의 파괴된 모습。이 공습으로 8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일람(이란) 15日UPI電送=聯合】

【테헤란·런던·워싱턴15日UPI=聯合】이라크영토를 침공한 약10만여병력의 이란군과 이에맞선 같은수의 이라크군은 15일 이라크제2의 도시 바스라근처에서 치열한 지상전과함께 공중전을벌여 쌍방이 막심한인명피해와 장비손실을 보았다.

美정보소식통들은 『극도로 치열한대규모전투가 현재 바스라근처에서 벌어지고있다』면서 『이전투는 22개월전에 이란·이라크戰이 발발한 이래 가장 규모가 큰것일뿐만 아니라 협소하고한정된 전선에서 벌어진 전투로서는 제2차세계대전이래최대규모』라고 밝혔다.

전투는 현재 바스라동북쪽 이란국경으로부터 약9·6km 떨어진곳에서 32km의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이란군이 3개방면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있으며 그중 한부대는 국경에서 20km지점, 다른 한 부대는 25km지점, 나머지 부대는 8km지점까지 각각진격해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15일 2일간에걸친 격전끝에 이란군을 이라크영토밖으로 격퇴, 조국땅을 『정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측은 이라크제2의 도시인 바스라로부터 7km떨어진 지점까지진격했으며 바스라함락은 시간문제라고 반박, 서로 엇갈린 전황을 발표했다.

이란軍 코뮈니케는 이라크영토 침공 이틀째인 이날 이라크의 소련제 미그기들이 이란의 국경마을에 야만적인 공습을 가해 민간인 15명이사망하고 1백45명이 부상했으며 지금까지 이라크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피해는 모두 사망 61명, 부상 6백45명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라크군 코뮈니케는 이라크군은 이틀간에걸친 이란군과의 전투에서 이란군 3천7백29명을 사살하고 많은 수의 이란탱크와 장갑차를 파괴했으며 바스라지역상공 전투에서 이란의 미제팬텀제트기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 코뮈니케는 또 이란군의 이라크공격에 때맞춰 친이란의 시리아가 공군활동을 갑자기 증가시키고 있다고주장했다.

埃、이라크에 軍援제공
시리아、空軍활동 增加

【카이로15日UPI=聯合】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은 15일 이집트가 이란과 교전중인 이라크에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카이로를 방문중인 한스·디트리히·겐셔서독외상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라크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한 이란의 처사에 동의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는 이란·이라크전이 발발한 직후부터 지금까지수백만달러어치로 추산되는 무기와 탄약을 이라크에 공급해왔다.

【알제(알제리)14日AFP=聯合】미르·호세인·무사비 이란수상이 오는17일 알제리를 공식방문할것이라고 알제리 관변소식통들이 14일 전했다.

알제리 정부관리들과 알제주재 이란대사관측은 이란의 對이라크침공에도 불구하고 무사비수상의 알제리방문이 아직취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알제리방문목적은 알려지지않았으나 관측통들은 무사비수상의 알제리방문목적이 이란·이라크전 해결을위한 알제리측의 중재노력을 검토하기 위한것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PLO、이生存權인정
埃외상 "相互교차承認 뒤따라야"

【워싱턴·카이로15日UPI=聯合】찰즈·퍼시美상원외교위원장(共·일리노이주)은 14일 한 믿을만한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할태세가 돼있다고말했다.

퍼시위원장은 이날 조지·슐츠차기국무장관의 상원인준에 앞서 믿을만한 한 중립적인 소식통으로부터 PLO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소식통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퍼시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백악관측은 아무런 논평도 하지않았다.

한편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은 15일 우선레바논에서 외국군이 철수한후 이스라엘과 PLO간의 상호외교적인 교차승인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외상은 이날 주간 알무사와르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집트정부의 당면과제는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창설이라고 말하고 평화유지군문제와 관련, 레바논정부의 어떠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말해 다국적평화유지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印度 대통령에 자일·싱 當選

【뉴델리15日UPI=聯合】인도 집권 국민회의당소속의 자일·싱후보(66)가 15일 야당단일후보로 출마한 한스·라지·칸나씨(70)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임기5년의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인디라·간디수상의 정치적기반이 크게 강화됐다.

싱후보는 지난12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총선거인단의 1백8만6천7백63표가운데 72%에 달하는 75만4천1백13표를 획득함으로써 28만2천6백85표에 그친 칸나후보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이날 당선이 확정됐다.

오늘의 얼굴

木手의 아들로 獨立투쟁
印새大統領「싱」

오는25일 레디헌 대통령의 뒤를이어 제7대 인도 대통령으로 정식취임하는 싱씨는 전인구의 10%밖에 안되는 시크교도로서 전생애를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바친 투사이며 원로정객으로 지난해 재집권한 간디내각의 내상으로 정계에 복귀한후 지난달 대통령출마를 위해 내상직을 떠났었다.

간디수상의 열렬한 추종자인 싱씨는 편잡州에서 1916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18세에 시크黨에 들어가 정치적자유를 위해 투쟁했으며 1948년 독립과 함께 편잡州경제상으로 정치생활을 시작, 州의 여러요직과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싱씨는 부인 카우르여사와의 사이에 1남3녀를 거느리고 있으며 부인과 아들은 고향에서 57에이커에 달하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波자유노조 3百명 프랑스亡命을 허용

【파리15日AP=聯合】자유노조 지도자들이 프랑스에 망명을 허용받을것이라고 파리를 근거지로한 피난민기구인 「프랑스 피난처」가 15일 밝혔다.

"휘청"거리는 스즈끼政權
록히드裁判계기 前首相 미끼 분노
내년公判 다나까 有罪확실
黨2人者 니까이도도 收賂… 波紋 크게번져
成敗의 키는 후꾸다向方에

◇다나까 前日本수상이 지난해 10월28일 東京지방법원에서 록히드 뇌물 수수 스캔들에관해 증언을한뒤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을때의 모습。

◇미 끼

◇스즈끼

【東京16日=宋孝彬특파원】17일로 출범 만 2년이된 스즈끼(鈴木)정권이 당내 반란으로 휘청거리고있다.

반기의 선봉장은 造反의명수인 미끼(三木)前수상. 미끼반란의 동조자는 자민당에서 미묘한 新자유구락부의 대표인 다가와(田川)이며 차기정권을 노리고있는 나까소네(中曾根)행정관리청장관과 고오모또(河本)경제기획청장관, 그리고 후꾸다(福田)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정관하고있어 스즈끼정권의 불안요인이 되고있다.

미끼前수상이 스즈끼정권에대해 도전을 선언하게된것은 록히드재판이 그계기가됐다.

東京지방 재판소가 지난6월8일 록히드사건에 관련, 하시모또(橋本登美三郎)전운수상과 동경무차관 사또(佐藤孝行)두피고인에게 각각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내년에열릴 공판에서 다나까(田中)전수상의 유죄판결이 확실해졌기때문이다.

더우기 하시모또와 사또양피고인에대한 판결문은 다나까派의 거두이며 자민당의제2인자인 『니까이도(二階堂)간사장이 검은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채택한다』고 기술함으로써 니까이도 간사장의 수뢰사실을 인정했다.

미끼 前수상은 자민당의제2인자인 니까이도 간사장이 록히드재판과 「회색고관」으로 낙인찍히인상 이들「회색고관」들을 국회에서 환문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다나까派 당간부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다나까派와 맹우관계에 있는 스즈끼수상은 작년11월제2차개각때 당내의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다나까派의 제2인자인 니까이도를 당의제2인자 자리인 간사장에 앉혔다.

스즈끼수상은 6·8재판을 통해 니까이도 간사장이 「회색고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당내에서 그의 퇴진론이 대두하고있어 重用한 정치적책임을 질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스즈끼수상은 베르사유경제정상회담에서 돌아오자마자 지난 6월19일과 20일 다나까·후꾸다·미끼등 前수상을 차례로 만나 재정적자의 속출등 국내외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미끼前수상은 돈이 안드는 정치를 위한 개혁을 제안했고 자민당이 다나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 총재로서 용기를 갖고 당운영 자유화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근대정당에 걸맞게 재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즈끼수상은 미끼의 苦言에 발끈, 『자민당이 다나까에 지배되고 있다고 보는것은 신문이 그렇게 보도할뿐이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스즈끼와 미끼와의 제1라운드는 이렇게 끝났다.

미끼의 도전적인 태세와는 달리 후꾸다 前수상은 『국제정세의 어려움과 적자재정속에서 난국을 극복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 스즈끼에 적극협력할것을 다짐하면서도 역시 협력할수 있는 분위기를 역설함으로써 스즈끼정권이 한 파벌에 편중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일침을 놨다.

「청렴한 미끼」를 표방하고 있는 미끼前수상은 2라운드로 지난74년 다나까정권의 「금맥」을 파헤쳐 하야의 계기를 만들었던 월간지 文藝春秋 8月호에 「다나까군, 빼기지 말라」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기고했다.

미끼前수상은 다나까派에 업혀있는 스즈끼수상을 직접 공격하는대신에 스즈끼를 업은 다나까 前수상을 공격하는 간접전술을 택한 것이다.

미끼의 다나까비판 기고내용은 다나까前수상이 중·참의원 1백9명이란 방대한 세력을 배경으로 자민당의 정책으로부터 내각운영과 국회해산에 이르기까지 제멋대로 이에 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짐이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14세처럼 『내가 자민당이다』라고 자민당을 막후지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미끼前수상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계를 정화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 「회색고관」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미끼는 『한 파벌이 자민당의석의 4분의1을 차지 함으로써 자민당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억제되고 있으며 이런상황으로 나가면 자민당이 제2차대전前의 大政翼贊會처럼 돼간다』고주장했다.

그는 또 『다나까파는 당운영의 관건을 쥐고있는 간사장, 간사장대리, 당경리국장, 국회운영권을 쥐고있는 국회대책위원장, 의사운영위원장등 중요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치가 깨끗해야 한다는것은 정치가 방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때문이며 권력이 크면 클수록 권력의 부패는 국민에게 큰피해를 가져다 주기때문에 정치가의 윤리는 더욱엄격하게 지켜져야만한다』고 강조했다.

미끼前수상의 이같은 스즈끼정권에 대한 造反은 8년전인 74년여름 다나까의 금권정치에 대한 비판의 선봉장이 되었을때와 비슷하다.

당시 부총재였던 미끼가 다나까의퇴진에 앞장섰고 大平內閣때는 미끼-후꾸다연합군이 反다나까운동을 벌여 급기야 다나까를 퇴진시켰다.

스즈끼수상은 최대파벌인 다나까派와 후꾸다派와의 3者聯合으로 안정된 정치기반을 구축했으며 베르사유경제정상등 어느만큼의 외교적성과로 가을에 실시예정인 총재선거에서 낙승을 예상했으나 미끼의 돌연한 반란으로 黨內에 파문이 일고있다.

스즈끼수상은 외교성과와는 달리 1백조엔에 가까운 누적된 재정적자, 미결된채 남아있는 行政改革과 韓日經協교섭문제 그리고 록히드사건으로 제기된 돈안드는 선거실시및 정치윤리확립등 해결해야할 내정의 난제가 산적해있다.

스즈끼내각은 지난주 참의원 公選소위원회에서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참의원 전국구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한데이어 금주에는 참의원본회의에서 이를 강행통과시킴으로써 국회운영은 경색되었다.

미끼반란의 成敗에 키를 쥐고있는 후꾸다가 아직까지 재정적자의 누적과 국제정세의 어려움을 들어 미끼의 반란에 가세하고있지 않고있어 대세에 표류중인 스즈끼정권은 그런대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의 경색과 물가고등의 요인으로 정관중인 나까소네 고오모또派가 미끼반란에 합세하면 萬波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越南 패망7年 사이공의 오늘…
經濟파탄 市民절반이 失業
公務員월급 쇠고기 3근정도
옛 自由체제에의 鄕愁강렬

◇호기심어린 어린이에 둘러싸인 미국인。胡志明市가 차츰 외국인에 개방되자 이런 장면은 흔히 볼수있게됐다。【外紙】

한때 동양의 파리로불리던 사이공은 월남패망을 깃점으로 胡志明市로 이름이 바뀐지 7년이 지났다. 사이공은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을까. 서방언론과 외신이전하는 사이공의 현실을 종합해본다.

사이공은 아직도 혼란을 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에서 내려온 지배층과 사이공원래시민과의 갈등이 심하고 당이 강제로 공산체제를 이식하려고 버둥거리는데도 옛 자유체제에대한 향수는 여전히 강렬하다.

가지를 치지않아 멋대로 자란 열대가로수와 칠이벗겨진 옛프랑스식 건물은사이공의 스산한현실을 잘말해주고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파탄지경에이른 경제난이다.

3백50만시민중 절반이 실업자이고 부정부패가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 설사 일자리를 갖고있더라도 수입과 물가와의격차는 하늘과 땅차이다.

공무원의 한달월급으로 살수있는것은 쇠고기 3근정도 또는 비누 3장이 고작이다. 암시장이 성행하는것은당연하다.

베트남 화폐단위인 동과 달러는 10對1정도가 공정환율이지만 암달러시장에서는 85對1 또는 1백對1까지 거래된다.

시민의 월평균수입은 1백70동(약 1만2천5백원)정도.

미제 콜게이트치약 하나가 1백70동에 거래되고있다. 하이네켄 맥주캔 하나는 50동이다.

부유했던 가정은 패물이나 가보 심지어는 우표까지 팔아 연명하고있다. 외국에있는 망명한 가족이나 친지들이 보내주는 선물과 송금이 큰힘이 되고있다.

아오자이(베트남고유의상)를 입은여인도별로눈에 띄지않는다. 천이부족해 치마를 늘어뜨릴수 없기때문이다. 대신에 헐렁한 검은바지와 블라우스가 통상복이 돼버렸다. 아오자이는 외국인을 상대하는 여인들만이 입는정도이다. 미군이남기고간 미국계 혼혈아도문제다. 수백명의 혼혈아가 미국인을 에워싸고 자기아버지의 사진을보이며 미국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빼어난 미모를 지녔던 제친구는 배를 타고 고국을 떠났지요. 그뒤로는 그친구 소식을 들은적이 없어요. 죽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창녀로 팔렸겠죠』

전직 변호사였으나 지금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한중년여성의 체념어린 회고속에 담긴 사이공의 현실이었다.

海外토픽

"엘女王 당신을사랑합니다"
침실侵入犯 침대걸터앉아 告白

◇엘리자베드여왕 침실 침입사건후 버킹검宮 경비가 삼엄해졌다。정문경비를 맡고있는 한 경관이 宮으로 들어가는 차를 세워놓고 차안을 엄중히검색하고있다。【外紙】

【런던15日AP=聯合】지난 9일 한괴한이 엘리자베드영국여왕의 침실에 침입, 世人을 경악케하고 대처내각의 인책론이 제기되는등 국내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사건의 진상이 15일 여왕자신과 수감중인 범인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엘리자베드女王은 15일 편소우를 나누고있는 영화배우 폴·에딩등 8명의 인사를 초청, 午餐을 나누는 자리에서 사건당일의 상황을 전했으며 범인 마이클·페이건(31)은 교도소에서 아내와 면회하면서 경위를 밝혔다.

○…여왕은 처음 커튼을내리고있는 침입자를 시종으로 생각했다. 여왕이 굳게 생각한것은 시종이외에 어느누구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왕은 곧 그가 낯선얼굴임을 알고 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페이건은 더러운 T셔츠에 청바지를 입은채 여왕이 사용하는 침대의 한쪽끝에 태연히 앉아있었다.

여왕은 머리에 헤어·핀을 꽂고 크림색의 잠옷을 입고있었다.

페이건은 앉은채로 『당신은 매우아름답다. 나는 당신을 매우매우 사랑한다』고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왕이 사랑스런 젊은 여인같이 보인다고도했다. 그는 또 여왕에게 『두려우냐』고 물었고 여왕은 침착하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되풀이했다.

그는 나중 침실에 가발이있는것으로보아 여왕이 가발을 이용하는것 같았다면서 머리에 작은 핀을 꽂기는했으나 여왕은 16세의 소녀처럼 사랑스럽게보였으며 아름다운경탄할만한모습이었다고말했다.

그는 여왕이 버리라고 할때까지 깨진 유리재떨이의 파편을 한손에쥐고있었으며 이것으로 팔목의 동맥을 자를 심산이었다.

그는 실제로 팔목을 파편으로 그어 그의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鮮血이 여왕의 하얀침대시트를 적셨다.

○…그는 나중 경찰에서 자신은 여왕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려고 생각했었으나 여왕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진술했다.

새拉致犯처벌법
★스리랑카세계비난막게

지난주 알리탈리아사소속 여객기를 공중납치, 30만달러의 몸값을 챙긴후 고국 스리랑카로 돌아온 세팔라·에카나야케에 대한 관대한처사로 인해 빗발치는 세계의비난에 시달려온 스리랑카정부는 그를 기소할수있는 새법안마련을위해 특별각의를 서둘러 소집.

이에따라 각의는 새법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24시간안으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한편 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대통령은 의회에 이법안의 승인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줄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스리랑카는 이탈리아정부의 범인인도요구에 따를수있다는것.【합동=UPI】

메아리

「요람속에서 배운것은 무덤까지 간다」고 프랑스의 격언은 일러 준다. 어린이는 보고 듣는 모든것을 굴절없이 직선적으로 받아 들인다.

오늘의 어린이들은 텔리비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자란다. 태어나서부터 TV화면을 대하는 시간이 국민학교에서 대학졸업때까지 학교수업시간을 받는 시간보다 길다는것이 미국의 한 조사결과다. 우리나라 어린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5~17살 아동들은 1년동안 학교수업시간과 텔리비전 앞에 마주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한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매체가 이들의 생활을 여러모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이 무디지는 것이 불가피 할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죤·듀이는 「어린이는 활동하는 순간 스스로 개성화해 간다」고 주장했다. 교육이란 결국 개성의 창조이며, 개성은 차라나는 환경과 인간교류로 만들어 진다.

그러니 어린이에겐 언제나 가까운 벗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벗은 주변 친구는 물론 자연과 사회일수도 있고 교사와 부모가 될수도 있는것이다. 이 넓은 「교류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이 탄생한다.

우리 어린이들은 「마음의 벗」이 모자라는듯하다. 학년이 높아 갈수록 자기 고민을 스승과 부모와 상의 하기를 꺼린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보고가 이사실을 잘 지적해 냈다.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걱정거리가 있을때 의논하는 경우가 드물다. 교사와의 관계 또한 유사하다. 속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나」 상담 상대론 친근한 존재가 못된다. 다른 나라 어린이들과 무드러지게 다른 모습의 하나다.

어린이를 過保護아래 두어서는 안되나 그들에대한 관심은 더 높여가야 하겠다. 자주적인 사고력을 키워줄 환경을 만드는 일이 어른의 의무가 아닐까….

22살의 어린이—. 나이테가 아무리 늘어나도 언제나 싱싱한 「어린이의벗」으로 자라온 소년한국일보가 오늘(17일)로 창간22돌을 맞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신문은 그 창간정신이 「올바른 민주주의 사상과 민족의식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창간때 어린독자들은 이제 당당한 성인이 되었다. 그들을 통해 민주와 민족의식도 성장해 갔것이라고 믿는다.

「어린이 벗」 22살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바캉스기분 잡치는「독버섯」

터미널 暗票商활개

豫賣制악용 수십장씩 빼돌려

檢票員결탁도…3倍이상 받아

바캉스시즌이 열리면서 제헌절 황금의 연휴를 맞아 서울江南區盤浦洞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암표상이 들끓고 있다. 남녀20여명으로 추산되는 암표상들은 예매제도를교묘히 악용, 수십장의 고속버스표를 선점하거나 검표원과 결탁, 표를 빼돌렸다가 정가의 3배이상을 받는 폭리를 취하고있다. 이들은 승객들로 붐비는 승강장부근이나 대합실에서 공공연히 호객행위까지 하고있는데 제대로 단속되는것 같지가 않다. 이들 암표상들은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6시까지 예매되는 고속버스표(3일전분에한함)를 자신들이 직접구입(1인당4장이한도임)하거나 1장이필요한 사람에게돈을주어 나머지 3장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는 숫법을쓰고있으며 주로 江陵·부산등 장거리 값비싼 표만 확보한다.

암표상중 일부는 검표원과 결탁, 3~5장씩 여유가 있는것이나 버스를놓치는 승객분을 빼돌려 팔아 나눠 착복하기도한다는것.

특히 요즘에는 당일표가모두 매진되게 마련이어서 당일 시골로가려는 승객들은할수없이 거액을주고 표를살수밖에없는 형편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날인 16일하오1시5분 서울종합터미널 동해안방면매표구앞. 이미 밤10시6분발 고속버스표가 매진직전인데도 江陵행 매표소앞에는 장사진이쳐 있다.

T셔츠에 청바지차림의, 30대 여인이 슬그머니 접근,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청년 4~5명에게『학생들 江陵에 빨리 가고싶지 않아요』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유인해낸뒤 재빨리 江陵행 고속버스가 있는 승강장으로 달려갔다.

승강장에는 하오1시10분발 江陵행 경기×바2×8×호 고속버스가 승객을실고 있었는데 검표와 화물을싣고 있던2명중 1명에게『표×장만…』하고 옆구리를 찌르자 잠시후 검표원의 주머니에서 버스표가나왔고 이표는 다시 학생들손으로 건너갔다.

30대여인과 학생들사이에 버스표와 1만원권 몇장이교환된것은물론이다.

하오1시40분 驪州행고속버스승강장. 이30대여인은초록색투피스를입은 안경낀 50대여인과 마주섰고, 잠시후 고속버스표 2장과 현금이또 교환됐다.

하오1시50분東海행승강장. 검표원은 40대 남자로부터 표2장을 부탁받고 터미널 한쪽구석으로 달려가 27~28세가량의 암표상으로부터 돈과 표를 교환한뒤 이남자에게 객을 태웠다.

암표값은 버스 출발시간과 파는 시간에따라 각각다른데 낮12시~하오1시사이에 출발하는 표가 가장비싸 江陵행의 경우 3천2백40원짜리가 1만원에 팔리고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버스회사 직원은 바캉스시즌에 암거래되는 버스표는 줄잡아 전체버스표의 1할가량이 된다고 말했다.【來】

◇暗票의 現場 승객이 돈 (흰화살표) 를 꺼내 건네주자 여자암표상이 지갑(검정화살표) 에서 고속버스표를 꺼내주고있다. 가운데남자도 암표상이다. 【16일하오 1 시40분 강남고속 버스터미널승강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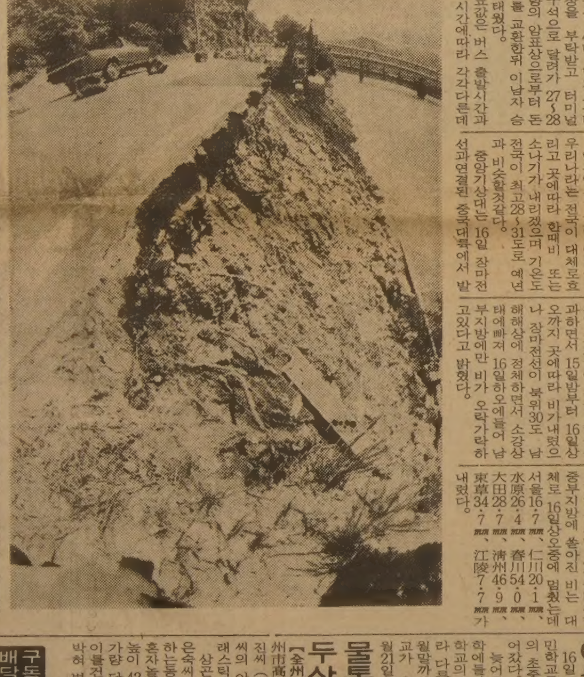
京春國道 완전不通

衣岩댐 부근道路 비에 또 무너져

【春川】지난14일 衣岩湖도로석축 45m가 붕괴돼 일방통행을 하고있던 衣岩댐 상류 1백m지점 京春국도가전날밤새 내린비로 16일 새벽1시께 중앙선까지 다시 유실돼 노폭 8m중 약3m만 남아 모든 차량통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서울—春川간직행버스와 春川—鐵原간 버스운행이 모두 중단돼 春川시외버스터미널은 큰 혼잡을빚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열차를 타기위해 春川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江原道와 原州 국토관리청은 현재 승용차및 트럭등은 春川漆田동 로터리—新南역—春城郡南面江村橋코스로 우회, 春川—서울간을 운행시키고 있으며 10톤이상 중장비차량은 洪川—京畿道楊平—南楊州—陶農으로 통행시키고 있다.



◇도로의 반이 잘려나간 衣岩댐앞의 京春가도。소형차량만 겨우 통행하고있다.【16일하오2시 鄭在斗기자찍음】

連休…곳에따라 비

氣象臺예보 장마前線南海해상에 멈춰

연휴인 17·18일 이틀동안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흐리고 곳에따라 한때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기온도 전국이 최고28~31도로 예년과 비슷할것같다.

중앙기상대는 16일 장마전선과 연결된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통과하면서 15일밤부터 16일상오까지 곳에따라 비가내렸으나 장마전선이 북위30도 남해해상에 정체하면서 소강상태에빠져 16일하오에들어 남부지방에만 비가 오락가락하고있다고 밝혔다.

15일 밤부터 서울을비롯한 중부지방에 쏟아진 비는 대체로 16일상오중에 멈췄는데 서울16·7㎜、仁川20·1㎜、水原26·4㎜、春川54·0㎜、大田28·7㎜、淸州46·9㎜、東草34·7㎜、江陵7·7㎜가 내렸다.

한편 15일밤 경북지방에도 평균6㎜의 비가 내렸으나 해갈에는 도움이되지못했다.

전국初中高校 여름放學시작

16일 서울의 3백20개 국민학교를 비롯, 전국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여름방학에들어갔다.

늦어도 19일까지는 모두방학에들어갈 중·고교와 국민학교의 여름방학은 지역에따라 다른데 경기와仁川시는 8월말까지이며 서울은 국민학교가 8월25일, 중고교가8월21일을 전후해서개학한다.

물통속에 빠져 두살아기 숨져

【全州】15일 하오4시께 全州市高士洞1街272 李의진씨(29)의집 부엌에서 李씨의 아들 상곤군(2)이 플래스틱물통에 빠져 숨졌다.

상곤군은 이날 어머니 권은숙씨(26)가 방안청소를하는동안 빈코피병을 가지고혼자놀다 병마개가 직경37㎝ 높이42㎝ 크기의 물이 33㎝가량 담겨있는 물통에빠지자 이를건지려다 물통에 거꾸로 박혀 변을 당했다.【聯】

美、95%効率 肝炎백신 生産

1회注射비용 30弗…세번맞아야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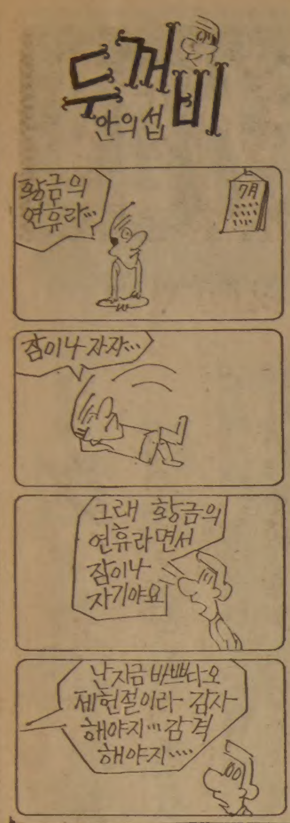
【뉴욕15日UPI=聯】세계최초의 肝炎백신이 현재생산중에있어 이로인해 매년약 5천명의 생명을 구할수있을것이라고 제조회사의 연구개발담당자가 밝혔다.

이백신은 95%의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데 이미 각병원에 30만회분의 백신이 공급됐으며 정부검사관의 승인을거쳐 계속 공급될 예정으로 있다.

美펜실베이니아州 웨스트포인트소재 미크·샤프·앤드·돔연구소의 바이러스및 세포생물학연구부주임인 모리스·힐러먼박사는 이백신이 B型간염용이며 지난해11월 美食品醫藥局(FDA)의 생산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백신은 간염에 걸렸던 사람의 혈장(血漿)으로 만들어지며 공급자로부터 사들이는 혈장은 1쿼트(0·95ℓ)당 5백~8백달러이다. 결국 이혈장으로부터 추출된 간염바이러스가 백신제조에 사용되지만 바이러스는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에의해 제거된다.

힐러먼박사에 따르면 1회주사비용이 30달러인 이백신은 3번맞는것이 좋다는데 두번째주사는 첫번째주사후 한달후에, 그리고 세번째는 두번째로부터 6개월후에 맞게되며 효능촉진을 위해서는 5년후 한번 더 맞는것이 좋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不渡막으려 회수용어음發行

李·張사건 4회公判 共榮 邊사장 背任혐의 否認

"張여인, 자녀養育·주택사라고 4億줘" 金守哲피고인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 사기사건 제4회공판이 16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許正勳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동사건「사실심리」가 모두 끝났다.

이날 공판에서는 張여인의 첫남편 金守哲(52)국가안전기획부 외무부연락관 宋正光(42) 大和산업 비서실부장 任安淳(40)피고인등 3명에대한 검찰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었고 이어 지난번 공판에서 미루어진 共榮토건 관련피고인 5명、李·張부부 (林在勇전조흥은행장에 대한 배임증재부분) 조흥은행 관련피고인 5명등에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共榮토건의 邊康雨사장등 간부들은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지난번검찰측 직접신문 때와 마찬가지로『李·張부부가 담보용으로 보관하겠다고 약속한것을 믿고 2배수 어음을 발행한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81년12월께부터 초과어음이 유통되는것을 알고 항의했으나 李·張부부가 결제능력이 있으니 염려말라며 기발행분에 대한 회수용 어음을 발행해달라고요구하는 바람에 부도를 막기위해 어쩔수없이 발행했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를 부인했다.

반대신문에 앞서 共榮토건 관련피고인들의 변호인인 金一과변호사는『검찰도 지금까지 공판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李·張부부의 철저한사기극이란것을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아 共榮토건은 피해자의 입장일뿐 배임혐의가 없다』고주장했다.

共榮토건 관련자들은 또회사자금 12억상당을 邊康雨사장 개인명의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부분에 대해『유상증자때 회사대표가 신주를 안사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추락하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안나서기때문에 관례적으로 대표명의의 주식을 상용한 회사가 관리하고 배당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는다』며 횡령의 범의를 부인했다.

또 共榮어음89억원이 부도상태에 있는데도 82년4월30일 증권거래소에서 그런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공시방송을 한혐의로 기소된 邊衛佐이사는『공시방송할 때 당좌거래가 중지됐는것을 몰랐으며 공시방송전 회사자금이사에게 확인해본결과 괜찮을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 역시 사기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金守哲피고인은『지난 78년2월부터 81년3월까지 사이에 세차례에걸쳐 전처인 張여인으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나 金피고인은『처음 張여인이 1억5천만원을 준것은 두자녀 (딸 16세、아들 12세)의 양육비에쓰거나 집을 사라고 준것이며 나를위해 준것은 아니다』고 말하고『두번째인 79년5월에 받은 1억5천만원 역시 張여인이 왜 집을 사지 않느냐며 집사는데 보태라고 추가로준것이고 세번째인 81년3월에 준 1억원을 준것은 共榮토건 邊康雨사장을 소개해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이었다』고진술, 張여인으로부터 받은돈은 세금을 내야할 만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金피고인은 張여인으로부터 받은 4억원중 처음 두차례의 3억원은 자신이 경영하던 大河금속의 확장에썼으며 지난해 받은 1억원은 은행에 보관중이라고 진술했다.

金피고인은 李哲熙와 邊사장을 서로 소개시켜준 댓가로 邊사장에게서도 2억원을 커미션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지난번공판에서밝혀졌었다.

任安淳피고인은 자신이 宋正光피고인에게 李哲熙씨의 여권을 빨리발급해 주도록부탁하거나, 1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宋피고인도 돈을받은사실이 없다고 진술、두사람 모두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한편 조흥은행 지점장들은『지점장이 전결할수있는 당좌대월한도액이 담보가 있을경우엔 3천만원이하이고 무담보일때는 2천만원 이하이며 그이상은 본점승인하에서만 가능하다』면서『日新제강에 해준 지급보증이나 당좌대월은 모두 본점의 승인을 받아했다』고 진술、업무상 배임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5회공판은 오는21일상오10시에 열려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金融좌표 나름대로 파악"

張여인、주식시장「베트콩資金」경계

○…張여인은 하오 공판에서 文相鳳 변호사로부터『지나간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다』고 전제、『74년부터 금융인들과 활발하게교류를 가지면서 실무까지는 모르지만 금융의회로、우리나라 금융의좌표를 내나름대로 잘알고 있다』고 말한뒤『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서 최근 소위「베트콩식 돌출자금」이라는 정체불명의 자금이 자주 튀어나와 이를 묶어두기위해 사채자금을 조성、은행에 예금시키려 했다』고 알쏭달쏭한 진술을 하기도했다.

○…張여인은 또『林在勇행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업무상 거래보다 인간적인 지식을교류하는 차원높은 교류를해왔다』고 말하고『이런분을 자신의 금융면의 윤리관에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데대해 죄송하게됐다』고 林행장을 추켜세우기도.

30代청년 投身자살

結婚문제로 말다툼

【木浦】16일 상오11시40분께 趙在永씨(31·木浦市東明洞1街)가 木浦市寶光洞3가5 생다방(주인金哲子·36) 3층옥상에서 12m 아래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聯】

「時代의 風雲兒」

李·張사건관련 李圭光피고인

無罪역설하고 "有罪판결해도 좋다"

李圭光씨(57·사진)는 확실히「보통사람」은 아니다. 그는 한때李·張부부사건의 배후인물로 뉴스의초점이 됐던 사람이다.

흰 모시 옷차림으로 법정에선 그의 건장한 체구에 검고 혈색좋은얼굴은「전형적인 군인」을 느끼게하는 풍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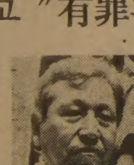
그는 검찰의 신문도중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 자신의심경、신분관계、사생활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다분히 여론을의식한 발언이라고 볼수있었다.

그러나 그의 법정진술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희한한 내용이란 생각을 뿌리치지못한다.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기전 몇가지 전제를 한다며『조용히 심판을받고싶어 변호사를선임안했다』『집안일을 가지고 손아래사람과 시비를가리기싫으니 진술내용이 다른점은 張여인의 말을 믿어달라』『증인이나 증거를 내세우지않겠다』고 했다. 그것은 차라리 신상발언이랄수 있었다. 그러면서 李·張부부로부터 2억원을받은것은 사실이나 청탁조의 명목은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의 핵심부분을 부인했다. 자신이 무죄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놓고 유죄판결을 내려도 좋다는 역설적인 논리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서 알선수재라는 자신의 죄명에 변호인과 증인증거를거부해 무죄입증을 포기한것이다. 그가 무죄를가리기위해 법정투쟁을 포기하는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일까. 이에대한 해석은 사람따라 구구하다.

그런데 법정을지켜본 법조인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인상평은 희한한 판정의 광경이라는 지적이다.

그의 성격은 겉으로는 대범한듯하고 활동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를 잘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단순한 사람인것만도 아닌것같다고 한다.



47년 육사3기로 임관한 그는 헌병학교 교장·헌병사령부 부사령관·헌병감·제2훈련소 부소장·부군단장직을 역임하다 5·16직후 육군준장으로 예편했다. 지난 63년3월에는 소위朴林恒장군반혁명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나중에 무죄가되어 4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때문에 준장예편후 연금혜택을 못받아 共和黨 정권 20여년간 불우한 시절을 보내야했다.

70년대말에는 막후활동같은것을 활발히 재개하다가 80년5월 광업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생애중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두번이나 옥고를 치렀다. 그는 단순한 풍운아일까.【林承茂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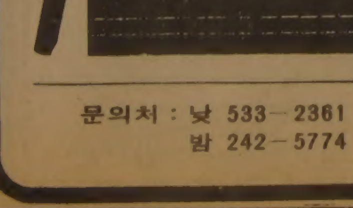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DON MILLS.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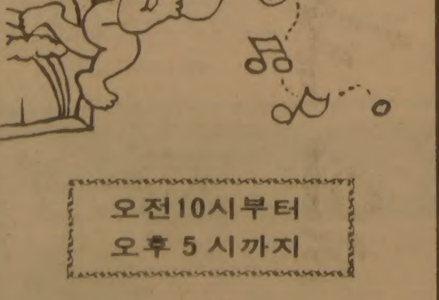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광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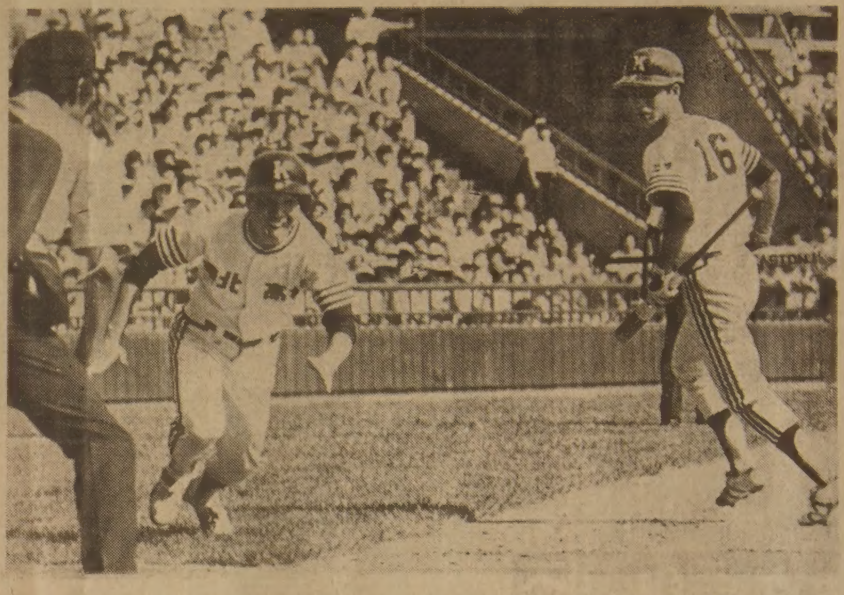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게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慶北, 群山商 꺾었다

1회 4得點 勝機잡아

群商 중반 맹추격 無爲…6·5로



◇慶北高의 先制點 잠실야구장 개장을 기념한 群山商—慶北高대결。慶北 1회초 공격에서 2루주자 柳光鎭㊧이 홈인, 첫득점을 올리고있다。

고교야구 4強戰 첫날

잠실종합경기장 야구장 개장을 기념하는 우수고교초청 야구대회가 16일 3만관중이 모인가운데 개막됐다。

대통령배대회와 청룡기대회 우승, 준우승팀 4강이 참가한 대회첫날 대통령배준우승팀 慶北高는 1회초 7번張文榮의 2타점 2루타를 포함한 집중3안타, 포볼 2개, 적실 1개를 묶어 단숨에 4득점, 승기를 잡았으나 群商의 추격을 받아 7회까지 6-5로 팽팽한 열전을 벌이고있다。

群商은 3년생 李東錫을 선발로 내세웠으나 慶北의 첫타자를 범타로 처리한후 2번柳光鎭을 유격수실책으로 살리면서 흔들리기시작, 연달아 안타를맞고 2년생 趙啓顯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群商이 1회말반격에서 연속 2안타와 적실로 2점을 만회하자 慶北은 3회초연속 3안타를터뜨려 4점차의 리드를 고수했다。

종반에강한 群商은 7회말 1死만루에서 1점을 만회, 6-5로 바짝추격했으나 5번趙啓顯이 삼진으로 물러나고 6번 張虎翼의 범타로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첫날전적

경북고	402	000	000	6
군산상고	200	002	100	5

〈하오7시현재〉

趙治勳9단,「碁聖」도전 첫국 敗

本因坊 방어위해 全力投球 안한듯

百12수에 不計로

○…本因坊戰도전기에서「天敵」고바야시(小林)9단에게 3승2패로 한발 앞서가고있는 趙治勳4관왕은 다섯번째 타이틀을 쟁취하기위해 오오다께(大竹)碁聖에게 도전했으나 서전을 패했다。

趙名人은 14일 열린 일본 제7위기전 碁聖戰도전5번기중 제1국에서 오오다께碁聖에게 집흑으로 대결했으나 1백2수만에 불계패를 당했다。평소 오오다께碁聖에게 강했던 趙名人이 초반에 패착을두어 패한것은 다소 의외였는데, 이것은 그가 모든 전력을 고바야시9단의 도전에 집중하고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趙本因坊은 21·22양일간 야마가따(山形)縣 무라야마市에서 本因坊도전 6국을 두게된다。여기서 그가 이기면 타이틀을 방어함과 동시에 그의유일한 라이벌로통하는 고바야시9단마저물리쳐버려 당분간 趙治勳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8월3일에 있을 碁聖戰도전 제2국에서도 차분한 마음으로 임해 승리할 공산이 크다。趙本因坊의 타이틀방어에는 아직도 위협이 없지않으나 그가 3승2패로 앞서있는 이상 고바야시9단은「天敵」이 아니라「해볼만한 상대」로 격하돼있다。

◇2년전 名人戰에서 맞붙었던 趙治勳名人㊨과 오오다께 碁聖이 碁聖位를 두고 또 격돌하고있다。사진은 名人位를 탈취했을때의 두기사의 모습。

金寅8단 8호반승

○…지난1일 열린 霸王戰 본선 제5국 金寅8단대 尹奇鉉8단의 대국에서는 白을 쥔 金8단이 2백25수만에 8호반승。

○…제8기 國棋戰 2차예선에서는 李東奎5단、金坐基4단、姜勳4단、洪太善4단、鄭東植4단、許壯會4단등 6명이 선발됐다。

학생王位 3連覇

○…재작년과 작년도에 學生王位戰을 석권했던 金正宇군(경성고3년)이 금년도에도 學生王位를 차지했다。지난해의 우승자인 金군은 지난4일의 예선에도 참가하지 않고 11일의 본선에만 참가, 3전전승으로 타이틀의 3연패에 성공했다。전국의 고교생중 1、2급의 기력을 가진학생64명이 참가한 대회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王位 金正宇(京城高3년)▲준우승 高允錫(충암고3년)▲3위 崔容豪(한성고1년)▲4위 李載聲(영등포고3년)▲5위 趙孝聲(경기고3년)

바둑의「中日전쟁」

中共선 오히려 將棋붐 바둑보다 人氣

日 바둑使節에 修鍊현장 끝내 안보여

日本과 中共이 접근하게된 요즘 새로운「中日戰爭」이 바둑판에서 벌어지고있다。양국의 바둑은 자본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프로바둑과 아마바둑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실력에 있어서 엇비슷하다는 점때문에 흥미를 자아내고있다。지난5월에는 후지사와(藤澤秀行)棋聖이 淸成哲也7단、安田泰敏3단、小松英樹2단、愛昌一就초단등 젊은 기사들을 데리고 北京에 가서 친선대국을 갖기도했다。

이들의 中共방문을 수행취재한 월간「棋道」의 小西泰三기자는『마침 우리가 中共에 도착했을때는 6월의 제10회日中圍棋交流團의 訪日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선발된 30여명의 젊은기사들이 합숙하고있었다』고 中共의 바둑열을 보도했다。

小西泰三기자는 中共측의 환영은 극진했다고 쓰면서도『中國圍棋躍進의 모체인 少年宮의 圍棋敎室을 꼭 견학하고싶었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아무리 신청해도 취재를 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中共에는 바둑못지않게 中國장기도 인기를 끌어 北京의 圍棋애호가들이 모이는 무료기원인 勞動文化宮의 棋藝室에서는 바둑을 두는팀은 3팀뿐이고 그 두배이상이 장기를 두고있었고 길거리에서도 여러사람이 둘러싸며 관전하고있는것은 바둑보다 장기였다고 이잡지는 보도했다。

바둑소식

중학생代表 선발

○…지난 3·4일 열린제1회 韓日중학생바둑교류전에 파견할 대표선수선발에서 金日泳(인창중3년)劉昌赫(충암중3년)蔣成桂(원주대성중3년)崔東俊군(충암중1년)등 4명의 남학생과 여학생대표로 梁賢珠양(부산남성여중 1년)이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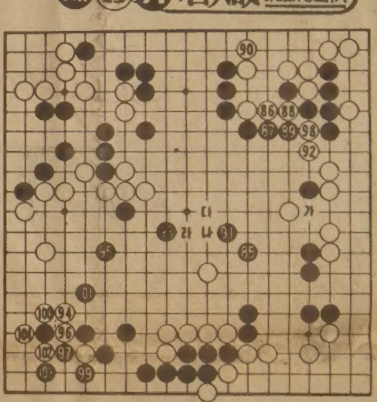
이중 여학생대표로 뽑힌 梁賢珠양은 1학년의 어린 나이여서 주위를 놀라게 했는데 그는 국민학교때부터 한국기원釜山지원에서 朴鍾烈2단에게 사사받은것으로 알려졌다。

奇手妙手集 발간

○…바둑도서전문출판사인 玄玄閣은 日本棋院의편집담당이사로서 많은 묘수를내놓은 마에다·노부아끼(前田陳爾)9단의「奇手妙手集」시리즈의 발간에착수, 제1권을내놨다。제1권은 1급~3급정도의 기사들이 볼만한 묘수들로 제1부「재미나는 妙棋」제2부「棋力이 붙는 妙棋」로 돼있다。정가 3천원。【梁平기자】

한국일보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第9譜 85~104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2段〉

黑(名 人) 曺薰鉉〈2冠〉

一大變化 發生

국면은 白이 우세한 대로 승부처를 맞이했는데 서로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제꺽제꺽 두어간다。黑85로 달려나간 데서 12시、아직 2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내 걸나는 일대변화는 일어나고 말았다。원인은 도전자의 白92가 시기상조인 데에 있었다。

92의 선수를 배경삼아 黑「가」하는 약점도 아울러 예방하여 굉장히 큰수였다。

문제의 白92。白86때 벌써 작정한 수단이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온건하게 白「나」로 붙여 黑「다」白「라」로 뻗었어야 쉽게 이길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 白92면 黑이당연히 98자리를 이어둘 것이니 그때 白「나」로 붙여도 넉넉하다는 생각이었을지모른다。하나 이것은 물론 독선적인욕심。도전자는 약간당황한눈치였다。원래 92와 같은수는 언제든지 선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이바탕에 黑은 아래쪽白을 잡는일대 포위하고 白은 우상黑을 커다랗게 변화가 생겨났던것이다。

수순중 黑95는『일단 96자리를 막고봄』。白96으로 째자 黑99가 필요했고 白100도 선수가 되어서는 크게 당할「곧」이라는 수후중훈이다。

여하간 白104까지 이해득실은 白이손해인듯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모양이다。【一凡】

한국人 美式축구 프로선수로

알라바마大 피터金에 달라스팀등서 公式서한

한시즌에 70點뽑은 頂上級 키커

各팀서 군침…移民간뒤 眞價발휘

◇한국인으로는 처음 미식축구프로팀서 뛰게된 피터金。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했다。

미식축구(아메리칸 풋볼)사상처음으로한국인이 프로선수로 뛰게된다。프로풋볼팀으로부터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선수는 美國 대학의 강호인 앨라배마大 플레이스·키커인 피터金(한국명 金凱桓·24)。방학을맞아 최근 일시귀국한 피터金은 지난학기에 프로풋볼 명문팀인 샌프란시스코·포티나이너즈、댈러스·카우보이즈、시애틀·시혹스등으로부터『스카우트할 의사가있다。체력및 적성테스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터金은 현단계서 프로팀과 공식계약을 맺을수없다。美國대학체육협회(NCAA)는 어느종목의 선수든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프로팀들과 직접만나서 스카우트교섭을벌이지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편지로만 의사 교환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터金은 내년 1월이후부터 4월 사이에 각팀 스카우터와 만나 구체적인 스카우트 조건등을 내걸고 협의하게 된다는 것。

현재 피터金이 소속된 앨라배마大는 지난시즌 9승1무2패로 전국 6위에 랭크됐으며 10팀이속한 南東部컨퍼런스 1위로 대학정상급의 전력을 갖고있는 명문이다。앨라배마大는 폴·브라이언트 코치로 더욱 유명하다。브라이언트씨는 지난해 3백15승을 거두어 이래 최고승리기록인 3백14승(50년대 스태그씨)을 돌파、全美國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

피터金은 브라이언트코치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프로팀서 군침을 삼키고 있다。

피터金의 개인성적은 우수하다。지난해 무릎부상으로 한게임만 결장、모두 11게임에 나가 20개의 필드골(3점) 가운데 15개를 성공시켰다。이 기록은 전국 랭킹 4위이다。또한 골킥(1점) 26개 가운데 25개를 성공시켜 한 시즌 70점을 뽑아、정상급 키커로서 주목을 받았다。

피터金이 미식축구와 인연을 맺은것은 4년전。왕년의 여자농구스타 金明子씨의 동생인 피터金은 한국에서 축구를하다 가족들이 하와이로 이민하자 하와이大 미식축구팀에 들어가 키커로 출발했다。1년을 하와이大에서 뛰다가 브라이언트코치의 눈에들어 2학년때 앨라배마大로 전학·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피터金에 의하면 현재美國대학풋볼팀에는 2명의 또다른 한국인이 선수로 활약하고있다。하와이大4년생인 라슨李와 드레이크大의 金대남。둘다 키커로 활약 하고 있다는 것。

피터金은 지난해 효창운동장에서 高麗大와 成均館大의 경기를 봤다고 밝히면서『볼킥 수비등에서 고칠점이 많았으나 욕심을 테이는 놀랄만한 수준』이었다고 평했다。키1m78、78kg의 다부진 몸매。【金仁善기자】

李萬洙 連4게임홈런

프로야구 三星、해태에 9회말역전승

通算11개 더비3위

李萬洙가 15일 大邱홈구장에서 벌어진 해태타이거즈와의 2차전 2회말 솔로·호머를 날려 프로야구 첫 4게임 연속홈런을 기록했다。

李萬洙는 홈런 통산11개를 기록、金宇烈(OB)、金奉淵(해태)과 홈런·더비 공동선두에 나섰다。

成學洙는 李萬洙·金漢根·裵大雄의 잇단홈런에도 불구하고 해태에 크게 리드당하던 三星을 9회말 2死후 역전3점호머로 구해 8-6의 역전승을 안겨주었다。三星은 후기시즌 홈구장에서 4연승을 기록、단독선두를 달리고 있다。

OB베어스는 大田에서 鄭宗鉉의 동점 솔로·호머、역전2루타와 楊世鍾의 결승타로 三美슈퍼스타즈에 5-4로 신승、3연승을 올렸다。

◇15일전적

◆대전

삼미	200	010	010	4
OB	110	110	01×	5

▲홈런=金慶男(1회·삼미)鄭宗鉉(2회·OB)

◆대구

해태	032	001	000	6
삼성	010	120	040	8

▲홈런=李萬洙(2회)金漢根(4회)裵大雄(5회·2점)成學洙(9회3점·이상삼성)

◆부산

MBC	000	001	20…1	4
롯데	000	110	01…0	3

〈10회연장〉▲홈런=金容哲(4회)車東烈(5회·이상롯데)金仁植(7회·MBC)

松源女高 不正선수 사건

대한 배구협회 任員3名 영구除名

대한배구협회는 15일 이사회를열고 光州松源여고 배구선수 부정사건과 관련、동교재단이사장겸 全南배구협회장 高壽哲씨에 무기한 자격정지를、동교 高光三배구부장、당시 전무이사 金錫柱、총무이사 宣秀吉씨등 3명을 영구 제명했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이사회에서 松源女高부정선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제를 상벌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상벌위원회는 4명을 영구제명토록 결의했었다。

또한 부정선수입학당시의 松源女中교장·배구팀감독코치·주무등에 대해서는 2년간 자격정지를、동생이름으로 뛰다 松源女高에 부정입학했던 崔美玉·朴京姬등 두 선수를 경고조처했다。

마라도나 移籍좌절

스페인, 팀要請거부

【바르셀로나(스페인) 15日 AP=聯合】스페인정부는 아르헨티나축구스타 디에고·마라도나(21)를 데려오기위해 8백30만달러(한화 약6억3천만원)의 이적료를 지불하겠다는 바르셀로나팀의 요청을거부했다고 스페인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농구계元老 李義斗옹

대한농구협회 부회장、대한체육회 고문등을역임한 농구계의 원로 李義斗옹이16일상오3시40분 자택(서울麻浦區延南洞257의5)서 급환으로별세했다。향년72세。장례식은 19일상오 9시반 세브란스병원서, 장지는 경기도華城郡선영。李옹은 해방전 延禧專門농구 선수로활약했으며 4남2녀의자녀중 차남一善 차녀玉善4남 晋善을 농구선수로 키웠다。4남인 晋善씨는 청소년대표와 한국대표선수로 국제무대서 활약했다。

스포츠短信

許丁茂휴가보내고 어제出國 ◆제12회 대통령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許丁茂가 한국에서 여름휴가를 끝내고 16일상오 부인·딸과함께 KAL便으로 떠났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65>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옹달 ㊺

밤새도록 못잔 일환이의 작은 눈은 충혈되고、마모된줄 알았던 얼굴의 선도 다시 윤곽을 되살아나 험상궂어보였다。오목이는 그저 어쩔줄을 몰랐다。

『겁 내지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말이 겁 내지말라는 걸까? 그는이미 내 죄책감을 들여다본 걸까? 그녀는 겁 내지말란 말이 차라리 더 무서웠다。

『이런데 태어나는 게 죄악이지만、없는 사람이라고 애 낳지말란 법은 없잖아、잘 될거야』

그럼 그가 겁내지말란 건 가난을 이름인가?

『낮에 가게로 나올래?』

『왜요?』

『점심에 불고기 사주려고…』

『어제 실컷 먹었잖아요? 아직 확실치도 않은 일에 신경쓰지 말아요』

그녀는 죽자구나 힘겹게 뒤집힌 비위를 억누르고 겨우 먹는 시늉만 했다。일환이는 임부의 이런 변덕을 예상한것처럼 억지로 권하지않고 혼자만 꾸역꾸역 먹어댔다。그러나 식욕을 즐기고있다기 보다는 고역을 치르고있는것처럼 조급하고 피로와 보였다。

그에게서 놓여나자 그녀는 마치 질식하기 직전에 신선한 공기를 마신것처럼 숨통이 트였다。

어린이 놀이터였다。아이들과 햇볕이 충만해있었다。그네를 타는아이、미끄럼틀을 타는아이、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시소、깔깔대는 웃음소리、그리고 눈부신 햇빛。

오목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홀린듯이 이런 것들을 바라다보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불고기가 아니라 햇볕이란 생각으로 그녀의 시야가 부옇게

『글쎄 나오라면 나오지。웬 말이 그렇게 많아』

일환이는 쉽게 화를 내며 강압적으로 나왔다。처음 일환이를 기다리던 다방에서 오목이는 다시 그를 기다리면서 이는 정말 임신한 거라면 기분이 그래선 안될것 같았다。

그녀는 두려웠다。어느 틈에 그가 와 서있었다。그는 앉지도않고 빨리 가자고 서둘렀다。그가 이행하려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너무도 고역스럽게 느껴져 오목이는 울고싶었다。

그와 산지 결코 오래다할수 없는동안에 너무 자주 울고싶어했다고 생각됐다。울고싶어했을뿐 한번도 속시원히 울어보지못한 울음이 목구멍에 묵직한 응어리가 되어 매달려있는 느낌때문에 불고기는 잘넘어가지 않았다。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고기타는 연기와 사람들의 왕성한 식욕도 미리 오목이의 식욕을 위축시켰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닦고 여러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찾았다。그녀는 멀리서 달려오는 자기 아이를 찾고 있었다。

그 아이는 눈이 컸으면、이마가 번듯했으면、코가 잘생겼으면、피부가 고왔으면、손가락이 길었으면、마음씨가 따뜻했으면…。

어린이 놀이터엔 햇볕과 아이들이 충만해 있었다。봄이었다。햇볕과 아이들의 계절이었다。

저 많은 아이중에 내 아이는 어디 있는 걸까?

마침내 오목이는 그 아이를 보았다。그녀는 이제를 닮은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안돼』

그녀는 신음했다。그러나 그 아이가 달려오는걸 막을수도 없었다。그 아이는 불길한 예감처럼 왔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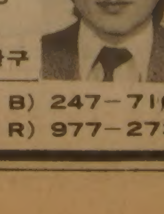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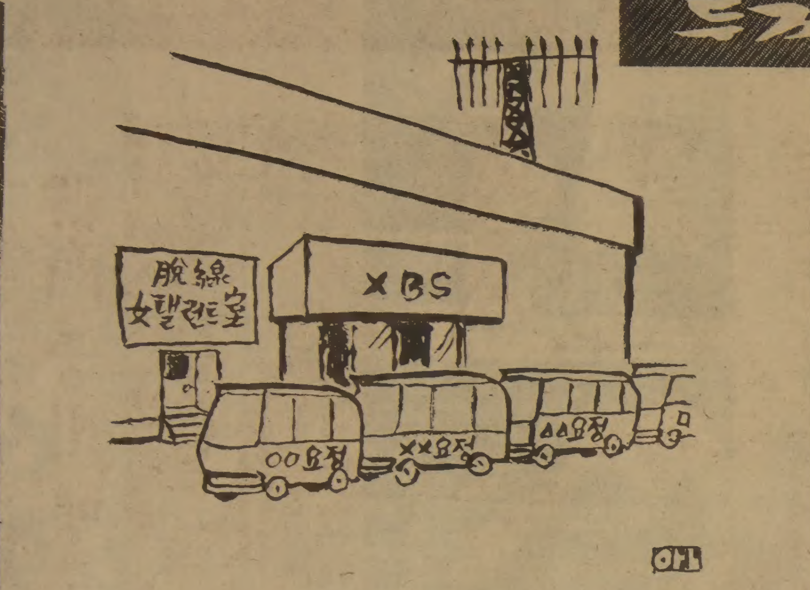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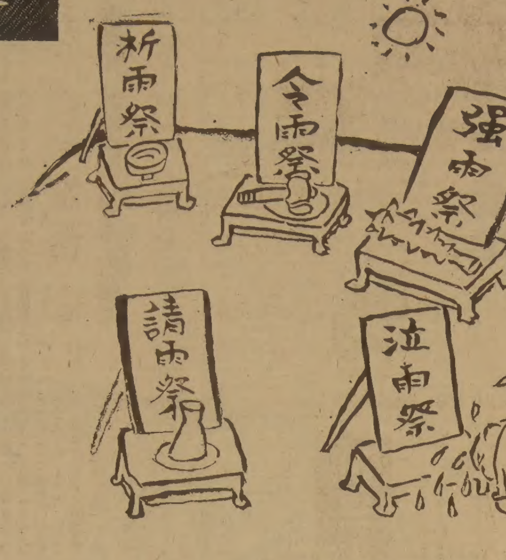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도깨비漫評



저녁에는 定期運行키로….



이것 저것 해본 끝에….

뉴스 낱말 풀이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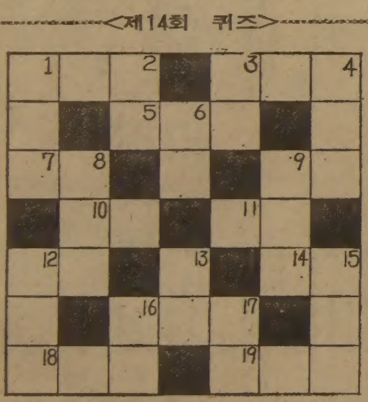
<힌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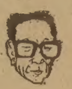
■가로
1. 유부녀와의 간통 혐의로 피소당한 국회의원
3. 1천2백만원 개런티 받고 영화에 출연하는 혼혈가수
5. 대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나타낸 지도
7. 온양에서 16㎞ 아래 쪽에 있는 온천
9. 태종대가 있는 섬
10.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도록 내어주는 과제
11. 儒道를 닦는 사람들
12. 일본식으로 빚어 만든 청주
14.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백성
16. 관현악을 위하여 작곡한 곡
18. 현해탄에 이어 도버해협 횡단도전
19. 서낭신을 모신 당

■세로
1. 이순신 장군의 수군 근거지
2. 체험을 기록한 글
3. 불교가 발상한 나라
4. 제주도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6. 상공업자가 자기 제품을 일반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이나 광고물에 붙이는 표지
8. 尹노파 피살사건에 얽혀 무죄 방면된 여인
9. 국유 임야를 관리·경영하는 기관
12. 화장실 등 汚水를 정화시켜 하수도로 흐르게 하는 水槽
13. 서울에서 시골로 거처를 옮김
15. 우리나라서 집권정당
16. 학생들이 받는 군사훈련
17. 울음소리

<14회 정답은 1-2면에>

<제14회 퀴즈>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⑩

●詩人의 말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말이 있다. 남자의 사랑이란 남의 속으로 자기를 처넣는 일이다. 예술가는 남에게 자기를 주기를 매우 꺼리는 존재다. 정신이나 육체 모두 자기는 아낀다. 그래서 참된 예술가는 사랑은 하되 자기를 다 주는 일이 없다.

이 말은 예술가가 아닌 이들이 자기를 다 주면 영토가 그만큼 확장되는줄을 알고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현상과 상반되는 말이다. 영웅은 호색이라고 하지만 예술가들-가령 피테나 피카소같은 이들은 나이가 칠순이 넘어서도 20대와 정정한 사랑을 했다. 그 밑바닥 비결이 접이불루(接而不漏)다.

섹스는 아낀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문의사가 힘주어 주장해보아도 현실은-사정한후 피로가 곱으로 오는것만은 사실이다. 진(秦)시황의 비법이라고도 하고 소녀경에 기록된 비법이라고도 하는 다접불루설(多接不漏說)의 의학적인 견지를 떠나 예술적 견지에서는 1백% 지금도 옳다. 성교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성교를 하되 사정을 아낀다는 것이다. 이 비법 없이는 수명이 더 단축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곧 간다.

실은 육체는 접하되 사정은 안한다는 동양의 접이불루(接而不漏) 비법이 포럼지와 더불어 미국의 성(性)잡지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휴먼 다이제스트(Human Digest)지에서도 저의 격월로 소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서양의학으로 운운할수 없는 정액본이다. 정액의 양을 운운하는게 아니다. 성교란 원래가 눈과 마음이 맞아야 해도 맞는다는 말대로 마음이 맞문제다. 속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면 이미 간음한거다라고 간파한 신약은 진리다. 정신작용이 곧 섹스작용으로 연결되어 클라이맥스에 사정으로 마무리된다.

그 과정을 동양의 선비들이 기록해 두었고 온 세계와 서방국가에서 깊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동양 선비들의 우수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섹스에 있어서만은 중국의 옛사람들을 따를 이가 없다할 정도로 그 역사의 밑바닥이 도교(道敎)에서의 도통(道通)과 섹스가 직결되어 있다.

이번호 휴먼 다이제스트 머리 기사 일부를 그대로 옮겨 본다.

<The Tao technique of avoiding ejaculation will ensure a man the ability to make love more often each day.>직역해 보면 도교에서 도통한 신선의 성기교는 클라이맥스에서 사정(射精)을 회피한다. 그 결과는 나날이 양물이 강해져서 더 자주 사랑을 해줄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다.

이것을 의역해 보면 도통한 남성의 접이불루법은 남성능력을 나날이 더 증진시켜준다는 뜻이 된다.

때문에 1회 성교의 호르몬 양이 4cc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침 한번 뱉는정도라거나 영화 한커트 본 정도라거나 하는 피로단정법은 전문의사들의 학설이고, 실은 성교를 정신에 술로 바라볼 때는 접이불루설이 1백% 옳다. 할 때마다 자기를 쏟아 넣으면 기진맥진해질 것은 상식이다.

전쟁이 끝나고 살았다는 해방감에서 초 스피디하게 인구가 급증한것은 계속 쏟아 넣은 소산인 것도 물론이다. 그 무렵 하도 오래 굶었다가 하루 진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서종삼(서울 종로3가)이라고 통하던 사창가에서 계속 자지를 창녀 속에 쏟아 넣은 시를 쓰던 친구 하나가 光化門 월계다방까지 걸어오지를 못하고 들것에 실려 수도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다. 하늘도 땅도 그리고 온 우주가 흙덩이같이 노랗더라는 후일담이다.

섹스를 연령별로 1주일에 몇회를 하면 된다는 친지식의 교훈도 신빙성은 적다. 개인차가 격심한게 성생활이기 때문에 자기 분에 맞게 해나가면 된다. 너무 안하면 위축되고 너무 해도 흙 한줌이 되어 간다.

孔子도 여인과 소인 다루기가 매우 힘겹다는 실토를 한바가 있다. 그 적당량 중에서 여인이 흡족하다는 오르가슴에 도달시켜 준 후는-물론 그 시간 분, 초는 역시 개인차가 심하다. 그것이 맞는 것을 옛말로 궁합이 맞는다는 표현으로 한 것인데-Faked Gasp-즉 가짜 헐떡임을 연발해 주면서 몽땅 쏟아 넣었다는 표시를 하면 된다.

가짜 헐떡임이란 여자같이 엘토 혹은 소프라노로 어마어마를 귓전에 연발해 주어도 되고 좋알 나간다는 산문을 괴성으로 속삭여 주어도 된다. 그러면 실탄을 안 내보내고도 실탄을 내보낸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

건강 좋고 정력이 왕성한 노인들은 거의가 다 이 진시황의 비법을 사용한 이들로 보아도 된다. 그러나 그런 비법이 서구까지 알려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래서 수년전 플레이보이 잡지 파티·조크란에는 그 비법을 모르고 한줌의 흙이 되어간 가련한 노인의 기사가 났었다.

75세난 남편 장례식에서 18세난 젊은 과부가 흐느끼며 영감의 사인(死因)을 털어 놓았던 거다. 『남편은 일요일 교회당 종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 박자를 맞추어가며 저를 사랑했읍니다.

그런데 3일전엔 불자동차가 지나갔지 뭡니까. 땡, 땡, 땡. 계속 급피치로 땡땡대며 오갔읍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답니다』라고. 많은 사망기사의 검은 활자 속에서 우리는 이 과부의 말을 응시하게 된다.

<계속>

전문인의 집 브랜든 종합 운동구점

✣ 유니폼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저희는 30여가지의 유니폼을 구비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품질보장·저렴한 가격.

7월 스페셜 SALE
⊙ 골프채·자전거·트로피
⊙ 어린이 축구화(퓨마) $21.98
⊙ 축구볼(수공으로 된 가죽제품) $27.98

adidas
Wilson
CCM

맞춤전문 :
유니폼(단체및 개인)
트로피 및 상패

337 BLOOR ST. W. ☎ 598-3732
(불루아×세인죠지)
이건영

週刊한국 스포츠

복싱

金喆鎬 왼손잡이에 약했다

발데스에 초반 苦戰했지만 롱런 가도 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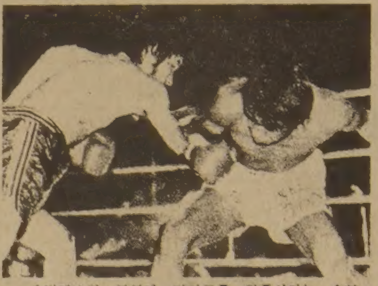
WBC슈퍼·플라이급 챔피언 金喆鎬가 5차방어에 성공, 일단 롱런가도에 들어갔다. 한국유일의 세계 챔피언 金은 지난 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멕시코의 도전자 라울·발데스와의 15라운드 타이틀매치에서 무승부를 기록, 가까스로 타이틀을 지켰다.

이날의 판정은 멕시코인 부심 실라밀과 이탈리아의 부심 홀레티가 각각 1백45-1백45로 무승부를, 한국인부심 鄭完泳씨가 1백48-1백46으로 金의 우세를 채점했다.

8천여 관중이 운집한 이날 경기에서 챔피언 金은 초반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복부공격을 펴는 발데스에 고전, 5회까지 이렇다할 명중타를 날리지 못했다.

6회들어 라이트단발을 몇차례 성공시킨 金은 7회이후 상대방에 접근하여 치고부수는 적극전을 폈으나 예리한 카운터로 응수하는 발데스의 노련한 경기운영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경기직후 서로 이겼다는 제스처를 지어보이는 金喆鎬와 발데스。



◇발데스의 복부에 라이트를 적중시키는 金喆鎬。중반이후의 적극공세가 주효했으나 발데스의 노련한 수비와 스피드에 말려 시원한 적중타를 터뜨리지 못했다。

金은 13회중반 스피드가 떨어진 도전자를 코너에 몰아붙여 관중의 성원을 받았으며 14회에는 라우스트레이트와 훅을 명중시켜 상대를 휘청거리게 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결정타를 터뜨리지 못한 두선수는 경기가 끝나자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무승부가 선언되자 발데스측은 WBC감독관에게 달려가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발데스측은 적어도 2점차로 도전자가 이긴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이날의 판정에 대해 WBC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WBC 아트·투리에 감독관도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하에 金喆鎬가 1점가량 뒤진것 같다고 얘기하며 金이 초반에 왜 적극적인 공격을 펴지 않은지 의아해 했다.

어쨌든 金은 이번 방어전의 성공으로 세계타이틀 최다방어 한국타이기록을 수립함과 동시에 일단 롱런가도에 접어든 셈이다.

그러나 金은 이번 대전에서 여전히 왼손잡이 공격법에 익숙치 못하고 수비의 헛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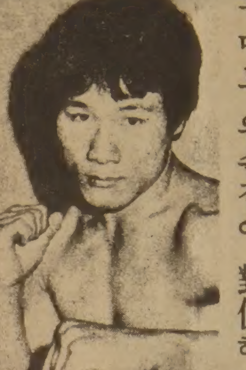
金은 많은 연습과 타고난 체력으로 맷집과 스태미너에는 더이상 요구할 게 없으나 공격후 제자리에 우뚝 서 상대방에 공격을 허용하고 가드가 처지는 점등을 시급히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공격법을 익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상대 오오꾸마도 왼손잡이 對備해야

金이 와따나베, 발데스등 왼손잡이와의 대전에서 고전한 점 그리고 발데스의 재도전 가능성과 다음 방어전 상대인 오오꾸마·쇼오지역시 왼손잡이인 점을 감안할 때 왼손잡이의 공략법 터득여부가 롱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연속KO승 기록

동양챔피언 白仁鐵



20연속 KO승의 대기록을 수립한 白仁鐵。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 주니어미들급 챔피언인 白仁鐵이 국내최초로 20연속 KO승의 대기록을 수립했다.

白은 지난4일저녁 金喆鎬-발데스전에 앞서 세미 파이널경기에서 멕시코의 동급 1위 안토니오·베이바를 2회 2분19초만에 KO로 제압, 20연속KO승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국내 최다연속 KO기록은 朴鍾八과 白仁鐵자신이 공동수립한 19연속KO승이었다.

白은 이날 수준이하의 헤이바를 맞아 좌우훅을 상대방의 보디에 명중시켜 간단히 경기를 끝냈다.

해글러에 도전

레너드, 복싱 계속한다면

◇슈거·레이 레너드

세계웰터급 통합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는 만일 자신이 복싱을 계속하게 된다면 세계미들급 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에게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5월 망막염때문에 로저·스태포드와의 타이틀전이 취소된바 있는 레너드는 현재 눈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중이어서 아무런 고통도 받고있지 않다면서 복싱을 계속하게 된다면 다음번 상대는 마빈·해글러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링에의 복귀여부는 3~4개월 이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너드는 또 복싱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면 체급을 헤비급까지 올려 챔피언 래리·홈즈를 멋지게 때려누이고 타이틀을 차지할 생각이라고 농담섞인 투로 말했다.

"장님이 野球게임을 中繼한다"

主人公 32세 린치씨…소리와 냄새로 상황 감지

장님이 야구경기를 중계한다. 이 거짓말같은 사실이 미국 시카고의 리글리구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시카고에서 태어난 금년32세의 크레이그·린치씨.

린치는 날때부터 장님으로 한번도 야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평생을 열렬한 야구팬으로 자처하며 라디오 스포츠캐스터로 명성을 얻고 있다.

다섯살때부터 부모와 함께 이곳 시카고 리글리구장을 찾기 시작한 린치는 지금까지 60개의 내셔널리그경기를 라디오로 중계해왔다.

오직 소리와 냄새에 의해서만 상황을 감지하는 그는 배트의 맞는 소리를 듣고 그 볼이 잘 맞았는지 빗맞았는지를 알며 관중들의 반응에 따라 볼이 멀리날아가는지 인필드플라이인지를 알아낸다.

그는 또 특별한 청각력을 발휘, 내야수들의 떠드는 소리로 투수의 모션을 감지하며 심지어 운동장내

날때부터 장님…게임못보지만 극성팬

내야수 떠드는 소리로 投手모션 알고

행상들의 외치는 소리와 팝콘의 냄새등으로 관중수와 경기의 흐름을 읽기도 한다.

시카고교외에 있는 트리톤대학의 교내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린치는 전국대학대항 야구대회에 출전한 트리톤대학의 게임을 중계하기 시작함으로써 스포츠캐스터로서의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님이라는 어쩔수 없는 장벽때문에 린치는 각 선수들의 세부동작을 낱낱이 중계할 수는 없었다. 린치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던 중 라디오를 옆에 놓고 상대팀 아나운서의 방송을 들으며 세부동작까지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트리톤대학에서 영문학학사학위를 받은 린치는 여기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스포츠정보분야를 담당하고있다.

린치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한 79년당시 공급과잉과 장님에 대한 차등대우로 직장을 얻지 못했을때 그 학교 축구팀코치가 경기중계를 요청해와 두게임을 중계했고 그후 농구중계도 해왔으나 역시 야구중계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함을 알았다고 말한다。【外信】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각종금지에 대한 낙서적 유권해석>

「잡상인출입금지」…유명회사 상인은 들어가도 됨。

「무용자출입금지」…무용하는 사람만 빼고 다 들어가도 됨。

「촉수엄금」…손아닌 발은 무방하다는뜻。

「꽁초 버리지 말것」…큰 담배는버려도 상관없다는 뜻。

「걸어 못다님」…뛰어 건너가면 된다는뜻。

「관계자외 출입금지」…관계자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라는 뜻。「소변금지」…대변은 보아도 된다는 뜻。

원혜영(아랫녁·무소속)

<대 화>

『사장님, 이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어떻게 살수 있읍니까?』

『무슨 소리야! 그걸로 쥐꼬리 10개는 살수 있을텐데?』

金 弗(土月文友會⑬4088)

<인생은?>

반은 만남을 기다리고 나머지 반은 그 만남을 후회한다.

—곽처가—

<과연 농군의 아들이로다>

미 소 (土月文友會·서울 성동구 화양동 167의 1 민속화실)

<어떤 고백>

벗기 위해 옷을 입는다.

—여배우—

박성서(휘경1동1-18의22·전국나서회)

<벼락맞을 사람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피서지의 악덕상인들—

新藝海(여의도 수문장)

<현대판 바캉스>

몰래 잤다가 불장난만 하고 온다.

<물가 물가 하지 맙시다>

우리 아들 해수욕 가자고 졸라댑니다.

하씨(문촌동주공아파트308동308호)

<여 름>

박두호 (포항시 덕산동 686·6통2반)

本社특약

블론디

딘·영作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지사

敎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英語연구원장>

◇민병철 씨

FAR FROM IT.

우리말에 「~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을 미국인들은 글자 그대로 Far from it. 이라고 한다.

「노래를 참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요」I hear you're a good singer. 이같이 물어 오는 데 상대에게 「노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음치입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ar from it. I can't carry a tune. 이같이 할 수있다. can't carry a tune이란 음률을 따라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tone-deaf (음치) 와 같은 말이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신다고 들었는데요」 I hear you drink a lot. 이같이 물을 때도 「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술은 입에 대지도 않는데요」 라고 대답할시는 Far from it. I don't touth liquor. 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는 beyond를 사용한 표현이 있다. Can you cook? (요리를 할 줄 아세요?) 이러한 물음에 beyond를 사용해 대답해 본다면 No, I'm afraid cooking is beyond me. (아니요, 요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같이 한다.

×　×

A : Can you help me with my German homework? You're a genius.
B : Far from it, but I' lltry tohelf you.
What's your problem?
A : I get mixed up with the irregular verbs.
B : You simply have to memorize them.
A : I know, but for some reason, I just can't keep them straight in my mind.
B : O.K. Sit down and I'll go over them with you.
A : What'll we do tonight?
B : I know! I can cook dinner for you!
A : Are you a good cook?
B : No, far from it. But I do know how to make chili.
A : That's fine! I love chili.
B : The only problem is, I don't have any food in the house!

×　×

A : 내 독일어 숙제 좀 도와 주겠니? 너는 천재아냐.
B : 천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한번 해보지. 뭐가 문제지?
A : 불규칙동사들이 혼동되는구나.
B : 그건 단순히 암기하는 수밖에 없지.
A : 암기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왠지 머리 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구나.
B : 좋아 앉아서 함께 한번 보자꾸나.

×　×

A : 오늘밤에 무얼 하지요?
B : 알아요! 저녁요리를 해 드리지요.
A : 요리를 잘 하세요.
B : 저는 요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칠리를 만드는 법은 알지요.
A : 잘 됐군요, 칠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B : 단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군요!

×　×

genius : 천재. get mixed up : ~와 혼동되다. for some reason : 무슨 연유인지 모르게, 어쨌지. (예) For some reason, I just don't feel like going. (어쩐지 가고 싶지가 않군요) go over : 복습하다. chili : 멕시코요리. 고추의 일종.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제2권(12불)·제3권(12불)

해외걸작만화

<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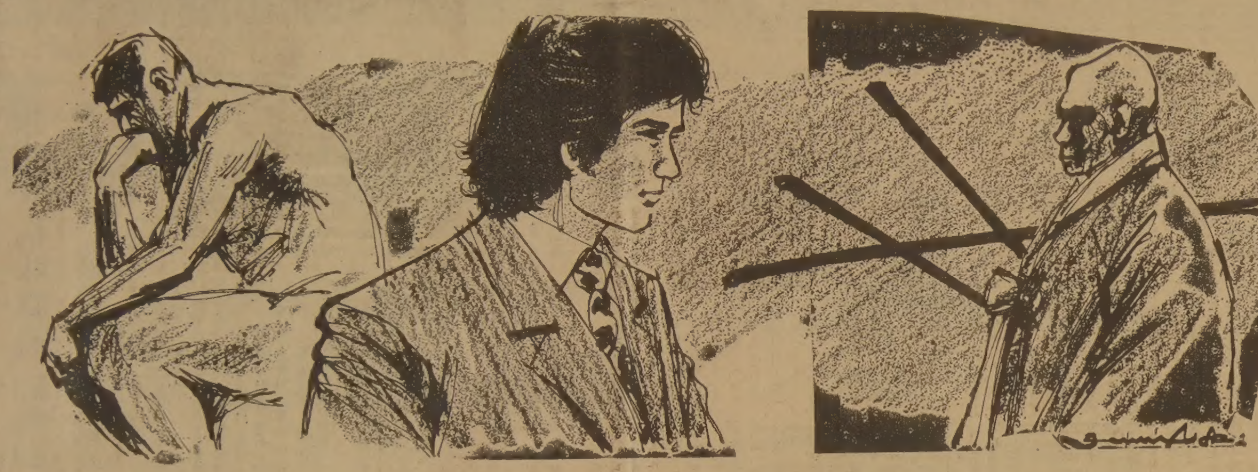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3



지난줄거리

황마담은 육체를 무기로 총찬을 휘어잡으려고 했다. 총찬은 황마담의 탐나는 육체를 거절하고 박부장의 버르장머리를 손봤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는다던 황마담의 계략에 말려들어 지하실에 감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황마담은 총찬을 없애려고 했지만 유기하란 괴력의 사내와 한판 승부를 벌여 살려주는 대신 황마담 비위를 묵인하는 참담한 패배자가 되어버렸다.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내 참담한 패배와 굴욕감을 분석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력이 모자란 것이었다. 유기하란 친구에겐 헛점이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방어자세였고 완벽한 공격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황마담과 박부장의 치졸한 행위에 대해선 금방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유기하의 솜씨와 내 치욕적인 패배만은 영원히 잊혀질 것 같지 않았다.

무공스님을 찾아나설 생각을 했다. 회초리 한개만 있으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스님의 신기를 내가 다 배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런 참담한 패배를 딛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무공스님한테 종아리를 얼마나 맞게 될지 모르지만 기어코 무공권법의 진수를 손에 넣을 결심이었다.

유기하가 나를 살려 보낸 것은 적수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강자는 관용이 있는 것이었다. 나 정도는 언제라도 해치울 수 있기 때문에 살려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빠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내 빠른 몸짓을 여유있게 막아낸 것을 보면 분명히 나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었다.

힘없이 걸었다. 이런 참담한 패배를 맛보고 살 순 없었다.

은주 누나는 곱지 않게 말했다.

『연락도 없이 돌아다니면 궁금해하는 사람 생각도 안나는 거니?』

『그럴 사정이 있었어.』

『어디 아팠니?』

『응.』

『이상하다.』

『더 묻지 마.』

나는 침대 위에 쓰러져 눈꺼풀을 누르는 잠을 거부하며 무공스님을 생각했다. 배가 쓰리게 고파 왔다. 이틀동안 굶은 셈이었다. 마취제에 취해 정신을 잃은 뒤엔 몰랐지만 뒷머리가 욱신거리며 쑤시기도 했다.

전화기를 들었다.

『형, 나요.』

김포 멥치형은 내 목소리를 듣고 대번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 생겼니?』

『그래요. 죽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죽으면 모든게 끝장이겠죠.』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나는 잠시 대꾸하지 않았다. 멥치형은 다그쳐 물었다.

『말해. 나한테 못할 말이 뭐냐? 어서 말하래두.』

『형, 나, 당했어요.』

『당하다니? 누구한테? 몸은?』

『엉망예요.』

『몸도 말이냐?』

『차라리 병신이 됐으면 이렇게 악받치진 않을 겁니다.』

『말해 봐. 누구야?』

『유기하라고 하더군요. 몸은 느려요. 그런데 안 되더군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 보낸 게 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못견뎌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걸 즐기려는 자식 아닌지 모르죠. 형, 나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내 목소리는 비통해졌다. 멥치 형이 옆에 있으면 엉기며 울고 싶었다. 나는 혼자 울고 있었다. 얼마만에 흘려 보는 눈물인지 모른다.

『안다. 네 맘.』

멥치 형은 매몰차게 한마디 던졌다. 몹시 화가 치미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네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무공스님한테 그렇게 배우진 않았다. 무공스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내 말 알아들었지!』

『나도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당하고 살아 있으란 말입니까?』

나는 격정으로 몸을 떨었다.

『임마, 그 자식한테 당한 게 너뿐인줄 알아?』

『뭐라구요?』

『나도 당했다. 꼭 5년 전에 너처럼 당했다.』

『어디서? 왜요? 형이 당하다뇨…』

『그게 세상이다. 이 땅엔 영원한 강자는 없다. 힘에 있어선 더 그렇다.』

『형이 당하다니…믿어지지 않아요.』

『못믿겠지. 그러나 내 손가락이 한개 없어진 사연을 알면…』

멥치 형도 북받쳐 오르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멥치형은 손가락 하나 잘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그런 판에 다몰다가 당한 사고려니 생각했던 손가락이었다. 그런데 그 손가락 잘린 사연이 나처럼 처절하게 당한 굴욕감 때문이라고 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다.

『그때 난 죽으려고 했다. 그러나 유기하란 친구에게 두번째의 농락을 당할순 없었다. 그 친구가 살려 보낸 것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바란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 버렸다. 그때나 난 후회했다. 손가락을 자를게 아니라 정말 강자가 되는 길을 찾아나섰어야 했다. 넌 결코 나같은 바보가 돼선 안된다. 차라리 무공스님을 찾아가라. 바보같은 짓 하면 널 내 손으로 죽이겠다. 내 말 알겠냐? 대답해!』

형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높았다. 목청 높이는 법이 없던 형이었다.

『……』

『말해 이 자식아!』

『형, 그 그 친구 누굽니까?』

『중국계 정통파다. 세살 때부터 제대로 배운 친구다. 함부로 다룰 사내가 못된다.』

『중국무술한테 안된다는 얘깁니까?』

『어느 무술이든 수련이 문제겠지. 그러나 지금까진 안되는 걸로 안다.』

『안돼요? 왜요? 왜 안된다는 겁니까? 누구 맘대로 안됩니까?』

『내 느낌일 뿐야. 나도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당했으니까 하는 소리야.』

『형, 갑시다. 무공스님한테 갑시다. 난 이대로 죽진 않겠어요. 중국계 정통파한테 안된다니 말도 안돼요. 그걸 꺾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할복하겠어요.』

『……』

멥치 형이 대꾸하지 않았다.

『이미 난 자격이 없다. 손가락을 잘랐잖느냐?』

『형!』

나는 더 할말이 없었다. 멥치 형은 다시는 무공스님의 제자가 될수 없었다. 처절한 패배를 승화할 자제력이 없었다는 건, 더구나 손가락을 스스로 잘랐다는 건 무공스님한테 용납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

『총찬아, 장하다. 네가 이룰수 있을거다. 내 몫까지 말이다. 우리 무공가에 그런 버팀목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중국정통파를 꺾을 수 있는 것도 네게 거는 기대의 마지막이 아니겠니? 넌 결코 허튼짓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네가 이루어내야만 한다. 패배란 늘 있는 거다. 그러나 배신자가 되어선 안된다. 우리 무공가의 나같은 배신자는 더 이상 나와서도 안되고 나올 자도 없다. 네가 마지막 제자라는 걸 잊지 마라. 차라리 내가 자결하마.』

멥치 형은 이를 악무는 것 같았다.

『형, 알겠어요. 내가 마지막을 지킬테니 형도 날 믿어줘요. 형이 살아있어야 내가 맘을 의지하고 해낼 거 아닙니까?』

『맹세하겠니?』

『합니다. 하고 말겠어요.』

『내가 살아 있는 건 비굴하지 않으려는 의지다. 이건 중국정통파와 무공가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 정신과 중국정신의 불꽃이란 걸 기억하라. 유기하가 너와 마찬가지로 막제자라는 것도 말이다.』

『그런데 형은 왜 여태 그 말을 안해 줬어요?』

『할 수가 없었다. 차마 말이다. 무공스님은 아신다. 네가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는 것도. 왜냐면 넌 꼭 패배자가 될 놈이었기 때문이다.』

『알아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걸. 내가 지나치게 우쭐해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유기하가 널 찾아낸 건 당연하다. 아니 너 말고도 일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다 찾아내고 있을 거다. 그것은 그들의 대국적인 정신인지 모른다. 우린 결코 소국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 정신이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형, 해내겠읍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널 믿는다.』

형은 울먹이고 있었다. 나도 울고 있었다.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무공가에선 패배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없는 선을 추구하는 무공스님의 정신을 배반하기 때문에 생긴 과한 욕심의 결과이기 때문이었다.

멥치 형은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반대했다. 내 결심이 선 이상 번거롭게 해결하고 싶진 않았다.

총찬아, 너와 같은 버팀목이라도 있어야 할것 아니냐
욕심없는 선을 추구하는 무공스님을 배반한 결과야

중국정통파라면 나도 들어서 아는게 있었다. 아주 어릴때부터 깊은 산속에서 세속과 단절한채 오직 무술만을 익히는 대단한 실력집산파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밥먹고 자는 시간마저 무술의 연장으로 평생을 연마해도 모자란다는 무술계였다. 차라리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었다.

나도 정통파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정통파라는 긍지를 실험하는 유기하를 그냥 두고 볼수는 없었다. 대륙의 정통파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무술실력을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무공스님이 일군, 한사람의 승려가 참선하며 터득한 정신력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다혜에게 사정얘기를 다 할수가 없어서 무공스님이 위독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짓말을 했다. 다혜는 사내들 세계, 이 내밀한 제자와 사부의 세계를 이해하는 편이었다.

짐을 싸들고 나서는 내게 은주 누나는 두려운듯이 물었다.

『돌아오는거지?』

『반드시 올거야.』

『언제쯤 오니?』

『온다는건 확실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다혜?』

『일부러 만나지 않았어. 나도 이 길이 얼마나 길지 모르니까. 잘을 없애려면 다혜 생각 않는것이 최선 아니겠어.』

『그렇게 사랑하니?』

『그런가봐.』

『질투난다.』

『누나, 돌아오기 전까진 소식도 없을거야. 편지 할만한 곳도 아니고 우체부가 거기까지 올 수도 없는 산골이니까.』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왠지 무섭기만 하다.』

『괜찮아. 반드시 오게 될 거야. 다혜한텐 누나가 자주 전화해서 내 얘길 전해줘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혜도 이해할 수 없게 될지 몰라.』

나는 바로 은주 누나 집을 떠나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고속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다.

무공스님 곁을 떠난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한번도 무공스님을 잊어본적은 없었다.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려나 때가 되면 찾아가 인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다.

무공스님은 그런 형식을 싫어했다. 큰 그릇이 아니고서는 길러낸 제자를 내버리듯 버릴수 없는 일이었다. 무공스님 밑에서 권법을 익힌 사람이 누구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무공스님은 수제자랄수 있는 어린 무초스님만을 알려줄 뿐이었다.

새벽녘에 여관방을 나서 산으로 올라섰다. 밤길로 산을 타고 그 깊숙한 산골을 찾아 나설수가 없었다.

회초리 한개만 들고 이 깊은 계곡과 산정을 타고 넘는 무초스님 여유를 나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산길은 멀고 험했다. 이런 험악한 길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니는 무공스님의 기력을 나는 알고 있었다.

겨우 암자가 보이는 계곡까지 왔다. 계곡 물줄기가 청아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암자 뒷벽에 새겨진 부처조각상이 올려다 보였다. 나는 깎아지른 벼랑을 기어올라갔다. 턱숭이 찼다.

『스님 저, 장총찬입니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문소리가 났다.

『들어오너라.』

변하지 않은 맑고 고운 목소리였다.

『문안 올립니다.』

나는 마당에서 넙죽 절을 올렸다. 무공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를 내려다 보았다.

『네 얼굴 보니 때가 많구나.』

『예, 그렇습니다.』

『몸을 씻고 오거라.』

『예.』

나는 계곡으로 내려섰다. 몸을 씻고 오라는 것은 받아주겠다는 뜻이었다. 계곡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 속에 몸을 담그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물이었다. 몸을 깨끗이 씻고 가방 속에서 새옷을 꺼내 입었다.

여름 햇살이 따가왔다. 나는 종아리를 만져 보았다.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얻어맞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스님, 몸을 씻었읍니다.』

나는 토방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스님이 문을 열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넙죽 절을 했다.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들어오너라.』

『예.』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방안에서 작설차 향기가 배어 나왔다. 스님 얼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조금도 늙지 않은 얼굴이었다.

『어째 왔느냐?』

『문안드린지 오래되어 찾아왔읍니다.』

『나는 괜찮다. 내 얼굴 봤으면 내려가거라.』

나는 고개를 들어 묵언 중인지 확인했다. 아무런 표도 달고 있지 않았다.

『며칠 쉬다 가게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일 없다. 문안했으면 내려가거라.』

『스님, 며칠만…』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안다. 정신못차리고 다니니까 일이 생기는 거다. 주먹은 함부로 쓰는게 아니다.』

『스님, 사실은 그 때문에 왔읍니다. 이대로 내려갈순 없읍니다. 머물게 해 주세요.』

『고얀놈.』

무공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아무말 없이 방바닥을 때렸다.

『있고 싶으면 내려가서 회초리 세개 해오너라. 물을 먹여 가져 오너라.』

『예.』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다시 계곡쪽으로 내려갔다. 싸리나무 가지 가운데 실해 보이는것을 세개 꺾어 계곡물에 넣었다. 맨발로 한참을 밟았다.

『스님, 회초리 해왔읍니다.』

『종아리를 걷고 회침을 들어라.』

나는 종아리를 걷어 무공스님쪽으로 몸을 세웠다. 회침을 양쪽손으로 받쳐들었다.

『세거라.』

『예.』

『왜 맞는지는 알겠느냐?』

『압니다.』

철썩. 하나. 철썩. 둘. 철썩. 셋. 철썩. 넷. 철썩. 다섯….

싸리회초리 세개 묶은 것이 내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었다. 무공스님은 결가부좌를 튼 채 조금도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자세로 손목만 세차게 움직였다.

회침을 놓치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그동안 매 맞은 것이 헛수고였다. 무공스님이 매를 그칠 때까지 참고 세는 방법밖에 없었다. 물 먹인 회초리는 한대만 맞아도 살점이 일어날 정도였다. 내가 무초스님한테 그 무서운 회초리 삼십대를 맞고 겨우 호흡법을 배웠었다. 그때도 무공스님처럼 손목만 움직이는 매질이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 그처럼 혹독한 아픔은 처음이었다.

무공스님의 매질은 종아리를 찰트 내려치듯 온몸이 저려왔다.

이를 악물었다. 회초리 끝에 피가 튀는 걸 느꼈다. 종아리 아래로 더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방바닥에 피얼룩진 것이 보였다.

무공스님은 여전히 매운 회초리를 놓지 않았다. 이러다가 종아리 살점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철썩. 마흔 여덟. 철썩. 마흔아홉. 철썩 쉬흔.

무공스님이 매를 놓았다. 나는 꼿꼿하게 선채 무공스님을 쳐다보았다.

『돌아보거라.』

나는 내 종아리와 살점이 묻어난 회초리와 피얼룩이 진 방바닥과 스님의 법의를 쳐다보았다.

『더 맞겠느냐, 내려가겠느냐?』

『더 맞겠읍니다.』

스님이 다시 회초리를 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회침 내리고 엎드려라.』

『스님!』

『어서!』

나는 엎드렸다. 스님이 윗목에 있는 상자를 열고 내 종아리에 약을 뿌렸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져 눈을 깜박거렸다. 무공스님이 웃었다.

<다음호에 계속>

싸리회초리 묶은 것이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정통파를 실험하는 유기하,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일보 事件기자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고속도로의 윤락과 도박, 유원지 야유회 위장 도박등 신종 범죄가 단속에 걸려들었다. 포니 승용차 절도범이 본네트 위에 뛰어올라 엎드린 운전사를 그대로 싣고 도주하다 잡힌 차도둑과 본의 아니게 스턴트맨이 됐던 운전사등 못 보고 못들어 봤던 새 사건—. 또 남산타워에 올라가 자살을 하겠다고 외치다 경찰의 설득으로 내려 선 젊은이가 있어 자살기도 장소로는 최고위(最高位)를 기록한 셈이다. 프로야구팀의 우승기념 사인을 받겠다고 몰려 든 어린이가 2만여명에 달했다는 사실도 기록이며, 그중 한 어린이가 전경대원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부상한 사건도 처음이다. 더위 탓일까, 바람직하지 못한 신종(新種)들이 많이 기록된「기자수첩」이 됐다.

설에서 주인 金씨에게 미8군 PX를 통해 일제 컬러TV와 비디오세트를 싸게 사 주겠다고 속여 1백20만원을 받아 가로챈혐의다.

누컴씨는 지난54년 전쟁고아로 미국에 입양, 남가주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한뒤 75년 한국에와 오퍼상을 경영하는 한편 S여대에서 영어강좌를 맡고 있다고.

▲프로야구 OB베어스의 전기리그 우승기념 사인회에 나갔던 어린이 金熙燦군(12·서울상도국교6년)이 전경대원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했다.

OB베어스 어린이회원인 金군에 따르면 지난5일하오2시반부터 하오4시까지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사인회에 친구2명과 함께 참석했는데 현장경비차 나온 서울영등포경찰서소속 전경대원들이 어린이들에게 마구 경찰봉을 휘둘러 머리를 맞았다는 것.

女大영어講師사기 쇠고랑

남산타워서 자살기도해 最高位 기록

이날 사인회에는 OB베어스선수 30명이 직접나와 어린이들에게 선수자신의 사진에 우승기념사인을 해주자 당초예상보다 많은 2만여명의 어린이들이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었다.

■사업失敗자살한前領事

▲서울강남구대치동316 은마아파트 23동에서 전스웨덴영사 金星應씨(47·동대문구이문동264의37)가 투신자살한것을 아파트경비원 金義植씨(4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金씨는 모기관에 20여년간 근무하다가 71~77년사이 주스웨덴영사로 근무했었는데 79년말 공직에서 물러난후 사업을 해왔으나 부진하자 이를 비관해 왔다는것.

金씨의 부인 金賢玉씨(45)는 한국외국어대 스웨덴어과 교수로 재직중 80년12월 스톡홀름대학에 유학차 출국중이고 국내에는 어머니 송창하씨(65)와 고교, 중학교에 다니는 두딸등 가족3명이 있다.

▲지난 6일 하오 6시20분께 金基弘씨(26·상업·서울성북구동선동3가51)

고속도로의 윤락·도박등 잇단 新種범죄

■휴게소서 윤락·도박

▲치안본부는 경부고속도로변의 일부 휴게소와 주변민가의 식당에서 화물트럭운전사들을 상대로 도박판과 윤락행위를 알선해온 張모여인(45·충남대덕군동면)운전사 金모씨(38·서울강동구천호동)등 11명을 적발, 관할경찰서로 넘겼다.

치안본부는 고속도로휴게소와 주변 식당등에서 화물트럭운전사들을 상대로 어같은 탈선행위가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天安삼거리, 水落정거장, 沃川, 秋風嶺, 慶山, 乾川휴게소 주변을 일제히 급습, 이들을 적발한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행위와 윤락행위등이 운전기사의 피로를 가중시켜 과로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 계속단속을 펼것이라한다.

유원지·야유회僞裝 도박도

본의 아니게 스턴트맨이 된 운전사

▲서울시경은 서울 동대문구망우동 극락사뒤 약수터의 숲속에서 40여명의 도박꾼을 모아놓고 화투로「상하」라는 도박판을 벌인 날나리파 도박단두목 梁允燮씨(47·전과18범·동대문구용두동39의894), 연락책李至鉉씨(64·도봉구창동866), 안내책 高建一(39·전과8범·동대문구전농동588)등 3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뚝섬경마장등지에서 도박꾼30~40명씩을 유인, 지난해 8월부터 우이동유원지, 정릉유원지, 망우동약수터등 10여개소의 유원지를 돌며 야유회를 하는것처럼 눈을 속이면서 편을 갈라 1백여회에 걸쳐, 판돈 2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있다.

梁씨등 도박판개장주들은 1회의 판돈 20~40만원가운데 1할을 떼는 방법으로, 도박판을 붙여주고 적발될 경우에는 야유회를 왔다가 심심풀이로 화투놀이를 한것처럼 가장했다는것이다.

▲서울 종로 경찰서는 한국계미국인 노먼·뉴컴씨(35·S여대영어강사·서울성동구 구의동 136의1)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뉴컴씨는 지난해11월20일하오3시께서울종로구돈의동44의1 Y커버상회(주인 金明秀) 사무

가 휴일관광객으로 붐비는 높이 1백25m의 남산타워 노천전망식당 보호철책밖사다리에 매달려 『살기 싫어 뛰어내려 죽겠다』고 외치며 자살극을 연출, 출동한 남대문서 형사기동대가 상가 주민들과 함께 구조작업에 나서는등 일대 소란.

金씨는 경찰의 끈질긴 설득으로 2시간만인 이날하오 8시반께 스스로 탑을 내려오면서 『아무말도 하기 싫다. 단지 죽고싶은 마음뿐이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남산타워 보안담당관인金炳喆씨(30)는 『이 소동으로 손님들이 놀라 상인들의 장사도 안됐다』면서 다른 휴일보다 4~5백만원의 매상이 줄었다고.

■기자사칭해作品가로채

▲서울종로경찰서는 기자를 사칭하고 서예가에게 접근, 작품을 사기한 車昌善씨(23·보수신학연구원생)등 가짜기자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車씨등은 지난1일하오1시께 서울종로구낙원동 낙원아파트 1415호의 金昌煥씨(51·서예가)에게 찾아가, 모 일간신문기자라고 속이고, 명함까지 건네준뒤 작품을 신문에 내주겠다며 金씨가 쓴「龍」자 서예작품(가로66cm 세로1백31cm 싯가50만원호가)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車씨등은 金씨로부터 작품을 사취한뒤 종로구관철동 L경양식점에서 S여사대2년 柳모양(19)에게 접

<삽화·權大雄>

한국일보 事件기자 수첩

프로야구 우승기념 사인 받겠다고 2만여명 꼬마 몰려

그중 한어린이 戰警隊경찰봉에맞아 부상

근 작품을 팔려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鄭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車도둑잡은 운전사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려다 운전사에게 들킨 차량절도범 2명이 이를 가로막는 운전사를 본네트위에 실은채 밤길을 1.5km나 달리다 그중 1명이 운전사의 주먹에 쓰러져 붙잡혔다.

지난 1일밤 9시께 서울 청량리로터리 근처 미주상가 주차장에서 金英培(22·주거부정)金仁德(21·주거부정)등 2명이 서울2다5344호 포니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려다 이를 본 이차 운전사 정용채씨(26)가 재빨리 차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를 몰았다는것. 그순간 정씨는 차에 치이지 않으려고 본네트위로 뛰어올라가 엎드렸는데 범인들은 과속으로 차를 몰아 절취현장에서 7백m가량 떨어진 청량리경찰서앞 네거리까지 달렸다.

범인들은 이 네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金泰勳씨(32·동대문구청량1동151의2)를 치어 자전거뒤에 타고있던 金씨의 두딸 혜선양(6)과 은선양(4)에게 각각 전치3주의 중상을 입혔다.

범인들은 사고를 낸 뒤에도 지그재그로 차를 몰며 홍릉쪽으로 도주, 홍릉파출소 부근 골목길로 들어섰다가 길이 막히자 차를 버리고 달아나려다 정씨가 격투를 벌여 둘중 김영배를 붙잡았다.

경찰은 金씨를 특수절도 및 상해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을 수배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과외교사 趙春子씨(37·서울중구만리동1가62)를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趙씨는 지난 3월1일부터 지금까지 1인당 월1만5천원씩 받고 딸의 친구인 K국교1년 車모군(7)등 5명의 어린이에게 하루 2시간씩의 과외공부(국어·산수·자연)를 시켜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양 경찰서는 자동차시동열쇠를 잘못 만져 자기부인을 숨지게한 김권섭씨(47·안양시안양동695의59)를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상양식품 안양대리점을 운영하는 金씨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면서 지난1일밤9시께 집마당에 세워둔 자기소유 경기8나3627호 3톤트럭에 올라가 시동열쇠를 잘못만져 차가 전진하면서 차앞에서 일하던 부인 金吉子씨(44)를 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 했다는것.

金씨는 10여일전 사들인 이 트럭을 운전사 김용철씨(29·안양시 안양동)를 시켜 운행해오다 이날 운전사가 차열쇠를 끼워둔채 퇴근하자 열쇠를 빼내 보관하려다 이같은 변을 당한것인데, 아내잃고 쇠고랑까지 차게 됐다며 통곡했다.

■구속된 안마원대표

▲부산남부경찰서는 3일 부산시남구남천동148 칼안마원대표인 맹인 김학봉씨(39)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자기집에 고용돼있던 맹인 하제국군(20)이 지난6월10일 金씨 안마원 부근인 남구광안동 187에 소망지압원이란 자판으로 안마원을 차려 나가면서 손님이 줄어들자 맹인아닌 사람을 시켜 하군의 지압원에 있는 고객명부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했다는 것이다.

金씨는 이것말고도 자기집 전화로 수십차례에 걸쳐 하군의 지압원에 전화를 걸고는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는것이다.

▲대낮에 도박판을 벌이다 40여만원을 딸린 가정주부가 도박밑천을 마련하려고 절도까지 저지르다 쇠고랑을 찼다.

7일 원주경찰서는 金俶淑씨(여·29·원주시태장동1통2반)를 절도및 도박혐의로 구속했는데, 金여인은 지난달 17일 하오2시께 원주시학성1동984 洪福子여인(59)집에서 주부朴貞子여인(44·원주시학성1동1073)등 5명과 함께 1점에 1천원씩하는「고스톱」을 하다가 40만원을 잃었다는것. 본전을 찾으려는 욕심으로 金여인은 이웃 姜應福씨(30)집 안방에 들어가 액면13만원짜리 가계수표 1장을 훔쳐 다시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車 시동열쇠 잘못 만져 夫人죽인 남편

무도예술협 원주지부서 主婦들에게 사교춤 가르쳐

▲淸州경찰서는 6일 崔鍾世씨(42·농업·충북청원군오창면파장리631)를 존속폭행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1일하오8시께 자기 집을 수리하면서 부인 朴春子씨(41)에게 『리어카를끌고가 블로크를 실어오라』고 했는데 이에 불응한다며 식사중이던 인부 두명과 가족들의 밥상에 삽으로 흙을 퍼다 뿌렸다고한다.

崔씨는 이를 만류하는 노모 姜雲城씨(72)에게도 삽을 집어 던지는등 행패를 부려 노모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를 보다 못한 이웃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崔씨는 경찰에서 『홧김에 그랬는데 뭐 철창신세를 질줄은 몰랐다』면서 너그러운 처벌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있다.

▲강원도원주시학성동1통1반, 손윤예씨등 주민 21명은 7일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대한무도예술협회 원주지부에서 대낮에 가정주부들에게 사교춤을 추게하는등 퇴폐를 조장하고 있다고 원주시 사회정화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내용에 따르면 원주지부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전무도만을 교습토록 돼있는데도 1인당 입장료 1천원씩을 받고 카바레처럼 각종 사교춤을 추게 하고있어 주부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도 입장, 제비족들과 어울리는등 지방의 미풍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티푸스접종 부작용

▲학교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학생 7명이 부작용을 일으켜 그중 2명이 입원 가료중이다.

6일상오11시께 서울강남구일원동 旺北국교에서 실시한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맞은 2년생 7명이 갑자기 심한 고열에 한기를 느끼는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이중 김선수군(8)과 박옥경양(8)등 2명이 강남시립병원에 입원했다.

旺北국교는 보사당국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예방접종을 미뤄오다 지난2일 인근 水西마을 주민 1명이 장티푸스증세로 숨지는등 심각한 사태가 되자 이날 강남보건소에 의뢰, 전교생 4백17명중 3백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약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남은 주사약을 조사중이다.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따라 동굴을 찾아내고 핀 물까지 발견, 모내기를 끝냈다.

경북 문경군호계면우곡리 朴相大씨(48)등 이 마을 농민 8명은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한 천수답 1만5천여평 때문에 고민하다가 『가뭄에는 뒷산의 동굴에서 물이 나온다』는 전설에 혹시나 하고 6월20일께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수맥찾기에 나선 결과 지난4일 물줄기를 찾아냈다는것.

농민들은 이곳의 잡석을 제거하고 3m 깊이로 파들어가자 깊이를 알수없을 정도의 물이 괴어 있었다는 것. 양수기를 동원, 동굴과 1km이상 떨어진 산밑의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끝내 한바탕 마을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전남목포경찰서는 신안군지도읍 도덕도앞 바다밑의 중국 宋·元代 문화재를 건져 팔아먹은 어선복성호선장 朴昌錫씨(45·신안군지도읍우전리153)와 선원 朴行喆(31·〃), 朴出用씨(43·〃)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부터 말일까지 5~6회에 걸쳐 자신들의 꽃게잡이어선 복성호로 밤을 틈타 바다속에서 청자접시·화병등 26점을 건져내 이중 5점을 2백만원에 팔고 나머지는 朴씨집에 숨겨놨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인양문화재를 사들인 洪性喆씨(38·목포시용당동960) 全顧玉씨(31·강진군칠량면영복리561)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3대독자를 순산한 산모가 아들의 백일잔치에 고마운 경찰관들을 초대, 따뜻한 인정을 꽃피운 이야기.

화제의 주인공들은 치안본부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제8지구대 鄭年柱경사(35), 柳貴元경장(32)과 경남울주군삼남면신화리651 鄭慶順씨(여·30).

지난3월28일새벽4시30분께 산기를 느낀 鄭여인은 병원을 찾아 집을 나섰다가 심한 하혈로 집에서 2백여m 거리인 경부고속도로변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었다. 이때 순찰중이던 鄭경사등이 鄭여인을 발견, 60km나 떨어진 부산시동구좌천동 일신산부인과의원까지 태워다줘 3대독자인 李眞旭군을 순산케 했던것.

지난2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일로 초대를 받은 두 경찰관들은 『경찰관생활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순간』이라면서 예쁜옷등을 선물로 사가지고 참석, 오랫만에 한때를 보냈다고.

<기록·정리 蔡升遠기자>

살림의 지혜

무덥고 짜증스런 여름을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기 위한 주부들의 지혜가 요청될 때다. 집안에 바람이 잘 통하게 창문을 효과적으로 열어두고 백열등보다는 형광등을 사용하는등 집안을 꼼꼼이 살피면 손볼데가 의외로 많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주생활(住生活) 요령을 알아 본다.

통풍 집안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면 우선 실내에 바람이 잘 들어오고 빠질수 있도록 창문의 위치가 확보되어 있어야하고 또 창문을 열어두는 요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엔 남풍이 많이 불고 남향집이 많은데 남쪽 창문에서 들어온 바람은 북쪽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야한다.

또 여름에 창틀마다 방충망을 붙박이로 달아놓으면 이 방충망을 통과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밖의 바람의 25%에 지나지않는다. 나머지 75%는 방충망에 차단되어 못들어 오므로 파리나 모기는 살충제로 없애가며 아주 더운때는 방충망을 열어 놓을수있도록 하는것이 심한더위를 피할수있는 방법이 된다.

여름 한철 잔디나 가려야할 곳엔 발을 치도록하고 자연 통풍을 최대한 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차양 차양머리나 추녀끝에 비닐이나 슬레이트를 칠경우 햇볕을 받아뜨거워져 온 집안이 후끈거리게 되므로 차양위에 굵은 갈대 발을 덮어놓으면 그늘이 져서 한결 시원하다.

부엌 집안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인 부엌의 열기구는 되도록 바람이 나가는 창문쪽에 두도록 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으면 창문을 아무리 활짝 열어도 실내의 기온은 내려가지 않는다. 또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빨래를 창문쪽에 걸어두면 실내의 높은 온도를 다소 낮출수 있다.

물뿌리기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과 베란다에 수시로 물을 뿌리는것도 효과적인 더위 퇴치법의 하나.

바람이 불어오는쪽 마당에 자주 찬물을 끼얹으면 지열을 식혀주어 바람이 시원해지기 때문이다.

그밖에 선풍기는 창문쪽에 문을 열어 놓고 틀면 한결 시원하고 특히 선풍기 뒤쪽에 찬물을 적신 수건을 걸어놓으면 찬 공기가 나와 한결 시원하다. 밤에는 형광등을 켜면 훨씬시원하다. 형광등의 발열량은 백열등의 3분의1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삽화·權大雄>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14회>

한	영	수		인	순	이
산		기	상	도		어
도	고		표		영	도
	숙	제		유	림	
정	종		낙		서	민
화		교	향	곡		정
조	오	련		성	황	당

故事通

不念舊惡 怨是用希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지난날의 나빴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고 원망하는 일도 드물었다. 청렴결백한 사람은 남의 舊惡을 생각하지 않는 도량(度量)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 그릇된 일을 고치면 더 미워하지 않으므로 남을 그리 원망하지 않는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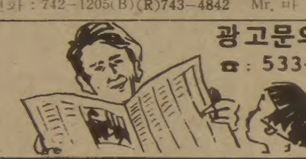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삿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웨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 : 533-2361
광고문의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방수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가게를 맡아 운영해주실분 찾음.
보증금 요(스탁), 주매상: $8,000 이상
연락처: 491-9701, (오후 6시이후 292-8838 Mr. 신)

Full Time dishwasher구함. (주6일 월요일은 쉼)
일하는 시간: 11:00a.m-2:30p.m, 5:00p.m-11:00p.m.
Mike 전화 : 487-3508

유경험자 Manager 구함
오후8시에서 11시사이에 449-6098로 연락바람.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Full Time Cashier 구함. (Day Time)
(Kipling & Bloor 근처)
전화 : 231-7944 (Mr. Hong)

세탁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무경험도 환영)
(Jane & Lawrence 지역) 오후 2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249-9331 (After 2:00p.m.)

경험많은 주말 가게 Helper 구함.
전화 : 278-8101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 _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2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Plaza에 있는 그로서리가게, 전강상 급매(일요일문닫음)
주매상 : $4,000이상, 리스: 4년4개월+5년 옵션
렌트 : $840, 1196 Kennedy Rd.(직접 내방바람)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78년도 CHEV, PICK-UP 트럭 급매
가격 : $3,800
전화 : 665-8233 (아침 10시~저녁 6시)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7,000~$8,000, 리스 : 3년반 + 5년 option
로타리오 머신 있음. 아스킹 : $80,000
115 Montezuma Trail, (Brimly & Finch)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1. Coffee & Snack Shop
주 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내.
주매상: $5,000 Rent: $830 리스: 1990년
2. Albion Rd. & Hwy 27 공장지대
한국요리를 겸할수 있는 Chinese Restaurant
주류일절 판매. Rent: $1,000 리스: 1986년 + 5년 option
3. 시간짧은 Drive in Hambu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년 + 5년 option

A. E. LePage Real Estate
Mrs. Woo 전화 : 741-9170

일본식·한국식 음식점 매매.
Vancouver 부근(B.C) 좋은 장소임.
$80,000 현금 필요.
요리방식 지도해 드림.
Lakeviw Realty
Mr. Jack Im.
(R) (604)-591-5897
(B) (604)-588-9955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던 가게였음)
리스 2년+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Air Condition 급매. (Fedders)
용량: 36,000 B.T.U. Used One. 가격: $2,800
2 unit. 연락처: 277-8985, 656-6753(Ross)

성업중인 Variety Store 건물과 함께 매매.
주매상 : $3,600, 아스킹 : $85,900
전화 : 923-1206, Mrs. Lee (다운타운 지역)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년매상: $200,000 가격: $28,000 + 스탁
F. Gallo Realtor 전화: 1-383-9356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급매.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3,300~$3,500, 리스 : 9년, 렌트 : $350.
이층 살림집 렌트 가능. 전화 : 757-64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3,300
전화 : 699-4804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1) 개인 Donut Shop (좋은 지역임)
주매상: $6,500이상, good mortgage
Rent: $2,200 아스킹: $260,000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Hamburger Shop
30여대 자동차 파킹 가능한 건물임. 건물은 McDonald 이나 Harvey와 같이 단독 건물임.
Asking : $150,000(건물포함)

(2)Variety Store in Mall
주매상 : $5,500+Lotterio+Post Office.
Lease : 5년+5년 Option, Rent : $1,800(관리비, Tax포함)
영업시간 : 월~토(9:00 a.m~9:00 p.m) 일요일은 쉼.
Asking : $100,000+스탁

(3)Variety Store with Gas Bar & Post Office
건물 2층에 2Bed Rm, 3Bed Rm Apt가 있으며, 단독주택도 있음. 그곳에서 월세가 $760 수입됨. 현재 여자노인 혼자 경영 하루매상 $300이나 전에는 주매상 $5,500넘던 가게였음. 작은돈을 투자하시고 살수 있으며, Rent에서 나오는 돈으로 Mortgage 지불하고 남음.
Asking : $13,500, Mortgage : 1st, 11½% $72,000
2nd Mortgage도 가능함.
연락처 : Mr. 박(오샤와) 1-623-7000

Tuck Shop for Sale.(St.Clair & Yonge)
주변환경이 좋은 거주지역내에 있는 큰 건물안에 위치한 가게. 리스: 7년, 주매상: $3,700
Stegy Real Estate
759-4761
Mr. Vasos Alexandrou.

Bakery for Sale
직접 빵만드는 장비 포함.
소매, 도매 모두 취급(소매는 잘 자리잡혀진 주거지역에 위치, 공장에서 10분거리에 있음)
주매상 : $6,000 넓이 : 4,731 sq.ft.
아스킹 : $143,000
Anna Cheng 전화 : 421-2214 / 465-1360
Newbliss R. E. Corp.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집렌트

2층 전체를 세놓고자 함(565 Pape Ave.)
2 Bed Rm. with 부엌 & 목욕탕.(노인부부환영)
월세: $350(M.) 전화 : 591-6863, 438-4519

아파트렌트

1 Bed Rm. Apt. 세놓음. (Downtown)
Sherbourne & Wellesley (언제든지 입주가능)
$380/M. 전화 : 537-3608 (Mrs. 리)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O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어×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휜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비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